제주무가 차사본풀이

신영산 풀이

* 원문은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4』,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에서 옮겨 왔음.
* 풀이글도 위 책에서 대부분을 옮겼는데, 다만 일부 단어는 풀이글이나 각주에서 더 뜻을 풀었고, 문맥이나 표기법에 맞게 내용을 고치기도 하였으며, 종결어미를 구어체로 바꾸기도 하였음.

1. 대사의 유언대로 버무왕의 아들 삼 형제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스님을 따라가 중이 된다

엿날 엿적 동경국 버무왕이 살옵네다. 천하와가(天下瓦家)[1] 늬 귀에 풍경(風磬) 달려 논전답(−田畓) 유기제물(鍮器財物) [illegible]주와 고 종하님[婢僕] 거느련 잘곰 살 때 아들[子] 시키나는게 ᄒ나 둘 일곱 칠형제(七兄弟) 솟아납데다.

우으로 늬성젠[四兄弟ㄴ] 원천강(袁天綱)에 ᄉ주팔ᄌ(四柱八字)가 조안 입장(入丈) 갈림시견 잘곰 살고, 알로 싀성젠(三兄弟) 원천강[2] ᄉ주팔ᄌ가 궂언 원멩(元命)이 ᄍ라져 열다섯 십오세[3] ᄉ구전멩(四苦定命)이 매깁데다.

그때예 동개남은 은중절(東觀音恩重殿) 서개남금벡당(西觀音金法堂) 낭개낭(南觀音) 노강절 북하상상(北恒山上) 농궁절(龍宮殿) 대서중[大師僧]이 칠십고레 팔십(七十古來稀八十)이 근당(近當)허연 벡발(白髮)이 펄펄ᄒ데다.

옛날 옛적 동경국에 버무왕이 살았습니다. 천하의 기와집 네 귀에 풍경을 달고, 논밭에 놋그릇에 재물이 많고 노비를 거느리고 잘 살 때,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 둘 일곱 칠 형제가 태어납니다.

위로 사 형제는 원천강[4]의 사주팔자가 좋아 혼인시켜 분가시켜 잘 살고, 아래로 삼 형제는 사주팔자가 나빠서 원래 수명이 짧아 열다섯 십오 세로 사람의 네 고통[5]을 겪다가 정해진 수명이 끝입니다.

그때에 동관음사 은중전, 서관음사 금법당, 남관음 노강전, 북항산 위 용궁전[6]에 대사중이 나이 칠십이 예로부터 드물다 하였으나, 나이 팔십이 가까와 오니 백발이 펄펄합니다.

1) 원문에서 '( )'는 한자음의 병기를. '[ ]'는 한자음이 다르거나, 뜻에 맞는 한자를 병기한 것임.
2) 이하 '원천강'은 풀이글에서 생략함.
3) 이하 중복되는 숫자는 생략함.

4) '원천강'은 당나라의 풍수학자로 관상을 잘 보았다고 함. 무속에서 점 잘 치는 사람을 가리킬 때 흔히 듦.
5)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네 가지 고통. 곧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6) '관음사'는 제주에 있는 절인데, 제주 무가에서 동관음 서관음의 표현은 흔하게 나타남. '은중전', '금법당', '노중전'은 절 안에 있는 법당. '북항산'은 중국의 명산인 오악의 하나.

대서(大師)님이 원천강 ᄉᆞ주역(四柱易)을 걷언 보난 팔십이 전멩(定命)이라. 모릿날 ᄉᆞ오시(巳午時)민 죽어 멩왕(冥王) 돌아살 듯ᄒᆞ옵데다. 대서님이 소서중[小師僧]을 불러 말을 ᄒᆞ뒈,

"소서중아, 소서중아, 난 모릿날 ᄉᆞ오시(巳午時)민 인간을 하직(下直)ᄒᆞ커메 날랑 죽건 낭[木] 천(千)바리 드령 화장(火葬)시경 서개낭(西觀音) 금벡당(金法堂) 왕성극낙(往生極樂) 지부찌고

널라근 동경국을 ᄂᆞ려사민 버무왕 아ᄃᆞᆯ 칠형제(七兄弟)가 뒈여진다. 우으로 늬성젠 ᄉᆞ주팔ᄌᆞ(四柱八字) 조아지고 알[下]로 싀정젠 원천강(袁天綱) ᄉᆞ주팔ᄌᆞ(四柱八字)가 궂언 열다섯 십오세 ᄉᆞ구전멩(四苦定命)이 매기니 이 아이 싀성젤 우리 법당(法堂)에 ᄃᆞ라당 법당공양(法堂供養) 시경 열다섯 십오세 멩(命)과 복(福)을 잇어주곡 널랑 대서(大師)를 삼곡 싀성제랑 소서(小師) 삼앙 우리 법당 공양(供養)ᄒᆞ라."

"어서 걸랑 그럽소서."

아닐세 모릿날 ᄉᆞ오시(巳午時)옌 대사중[大師僧]이 죽어간다. 신첸(身體ㄴ)낭 천(千)바리 드련 화장(火葬)허연 금벡당(金法堂) 왕성극낙(往生極樂) 지부찌고 지치고 곤ᄒᆞᆫ 짐에 무정눈[無情眼]에 ᄌᆞᆷ을 자노렌 ᄒᆞ난 날이 ᄇᆞᆰ는 중 몰라져, 멩왕(冥王) 가던 대서님이 꿈에 선몽[現夢]을 드리뒈,

"이야, 소서중아 너는 어찌 무정눈에 ᄌᆞᆷ을 자겠느냐? 어서 바삐 일어낭 보라. 천앙ᄃᆞᆨ[天皇鷄]이 ᄌᆞ지반반 울어간다. 어서 바삐 동경국을 상(向)ᄒᆞ라."

벌딱ᄒᆞ게 께여난 보난 천앙ᄃᆞᆨ이 ᄌᆞ지반반 울고 머언 동이 늬염들르게 뒈였고나.

대사님이 원천강 사주역[1]을 읽어 보니 팔십이 정해진 수명이라, 모레 사시 오시 죽어 저승으로 돌아설 듯합니다. 대사님이 소사중[2]을 불러 말을 하되,

"소사중아, 소사중아, 나는 모레 사오시[3]면 인간을 하직할 테니, 내가 죽거든 나무를 천 바리[4] 들여 화장시켜서, 서관음 금법당에서 극락왕생하게 해 주어라.

너는 동경국을 내려가면 버무왕에게 아들 칠형제가 있는데, 위로 사 형제는 사주팔자가 좋고, 아래로 삼 형제는 사주팔자가 나빠 열다섯 살에 정해진 수명이 끝이 나니, 이 아이 삼 형제를 우리 법당에 데려다 법당 공양을 시켜 열다섯 살의 수명과 복을 이어주고, 너는 대사가 되고 삼 형제는 소사를 삼아 우리 법당을 공양하게 하라."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모레 사오시에는 대사중이 죽어간다. 시신은 나무 천 바리를 들여 화장하여, 금법당에 극락왕생시키고, 몸이 지치고 피곤한 김에 아무 생각 없이 잠시 잠을 자노라니 날이 밝는 줄 모르더니, 저승에 가던 대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야, 소사중아, 너는 어찌 그렇게 잠을 자느냐? 어서 바삐 일어나 보아라. 하늘의 닭이 조용한 가운데에 크게 운다. 어서 바삐 동경국을 향하여 가거라."

벌떡 깨어나 보니 하늘의 닭이 조용한 가운데 크게 울고 먼동이 트게 되었습니다.

---

1) 원천강이 쓴 점서.
2) 상좌스님 또는 어린 스님
3) 사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시는 11시부터 13시까지.
4)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연주단발신연벵무(剪爪斷髮身嬰白茆)ᄒᆞ고 법당 안에 들어가 목딱(木鐸)을 치어 아침 불공(佛供) 드려두고 ᄒᆞᆫ 침 질른 굴송낙에 두 귀 누른 굴장삼(長衫) 둘러입언 벡파염줄(百八念珠) 손에 목덕(木鐸) 거느리고 호롬줌치 극보잘리 아강베포 둘러젼 동경국을 상(向)허여 소곡소곡 ᄂᆞ려온다.

동경국을 근당(近當)허여 ᄉᆞ도전거릴 지나단 보난 버무왕 아ᄃᆞᆯ ᄉᆞᆷ성제[三兄弟]가 펭ᄌᆞ낭 그늘에서 바독 방귀[圍棋將棋] 뒤염시난 소서중이 가는 질 멈추와 말을 ᄒᆞ퉤,

“이야, 느네 ᄉᆞᆷ성제 바독 장귀 뒤멍 노념놀이 허염주마는 얼굴 관상(觀相) ᄒᆞ건댄 열다섯 십오세 ᄉᆞ구전멩(四苦定命)이 매길 듯 ᄒᆞ는구나.”

소서중은 일러두고 동북방(東北方)을 상(向)허여 소곡소곡 가옵데다. ᄉᆞᆷ성제 그말 듣고 뒤단 바독 그만두고 아바님전 어머님전 [illegible]어,

“아바님아, 어머님아, 어찌 우리 ᄉᆞᆷ성제는 멩(命)과 복(福)을 ᄍᆞ르게 나옵데가?”

“그게 무슨 말일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삼성제가 바독 장귀 뒤멍 노념허염더니마는 어느 절[寺] 대선지 소선지 중이 지나가단 말을 ᄒᆞ퉤, 우리덜 ᄉᆞᆷ정제 얼굴 관상ᄒᆞ건데 열다섯 십오세 ᄉᆞ구전멩(四苦定命)이 매기옌 일러두고 동북방데레 가옵데다.”

그 말 끗데 버무왕이 말ᄒᆞ퉤,

“수벨캄(首別監)아, 수장남(首-)아, 저 올레예 나고보라. 어느 절 중이 있겠느냐?”

손톱과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르고 흰 띠풀로 몸을 씻고, 법당 안에 들어가 목탁을 쳐 아침 불공을 드려 두고, 한 침 지른 굴송낙[1]에 두 귀 누런 장삼을 둘러 입어. 백팔염주와 손에 목탁을 쥐고 시주받을 차림으로 삼베로 만든 바랑[2]을 둘러메고 동경국을 향하여 소곳소곳[3] 내려옵니다.

동경국에 가까이 와 네거리를 지나다 보니, 버무왕 아들 삼 형제가 팽나무 그늘에서 바둑 장기를 두고 있으니, 소사중이 가는 길을 멈추고 말을 하되,

“얘야, 너희 삼 형제 바둑 장기를 두며 놀이를 하고 있지만, 얼굴 관상을 보니 열다섯 살에 정해진 괴로운 수명이 끝이 날 듯하구나.”

소사중은 그렇게 말하고 동북방을 향하여 소곳소곳 걸어갑니다. 삼 형제는 그 말 듣고 두던 바둑을 그만두고 아버님 어머님 앞에 달려 들어,

“아버님아, 어머님아. 어찌 우리 삼 형제는 명과 복을 짧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더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삼 형제가 바둑 장기를 두면서 놀고 있더니, 어느 절 대사인지 소사인지 중이 지나가다가 말을 하되, 우리들 삼 형제 얼굴 관상을 보더니 열다섯에 괴로운 수명이 끝이라 일러두고 동북방으로 가옵디다.”

그 말 끝에 버무왕이 말을 하되,

“수별감[4]아, 수머슴아. 저 올레[5]에 나가 보아라. 어느 절 중이 있는가?”

1) ‘송낙’은 소나무겨우살이를 엮어 만든, 여승(女僧)이 쓰던 모자. ‘굴’은 ‘접히다’의 뜻을 지닌 접사 ‘골-’인 듯함.
2)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같은 큰 주머니.
3) 허리를 소곳이 연해 굽히는 모양.
4) 머슴의 우두머리.
5) 거릿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

그 말 떨어지기 전의 소서중[小師僧]은 머언정 ᄆᆞᆯ팡돌[下馬石] 알[下]로 굽어 성천ᄒᆞ멍,

"소승절이 베옵네다."

"어느 절 대설러냐?"

"동개남(東觀音)은 은중절(恩重殿) 대서(大師)님은 푼처[佛陀]를 직ᄒᆞ고 소서가 뒈옵네다."

"어찌허여 이 국을 근당(近當) 허였느냐?"

"헌 당(堂)도 떨어지고 헌 절[寺]도 떨어젼 인간에 ᄂᆞ려사 권제삼문(勸齋三文) 받아당 헌 당 헌 절을 수베(修備)ᄒᆞ영 멩(命) 엇인 ᄌᆞ손(子孫) 멩도 주곡 복(福) 엇인 ᄌᆞ손 복도 주곡 생불(生佛) 엇인 ᄌᆞ손(子孫) 생불(生佛) 환생(還生)을 주저 시권제삼문 받으레 ᄂᆞ려샀수다."

"어서 가까이 들어왕 권제삼문 받아가라."

"높이 들렁 ᄂᆞᆽ이 시르르 시르르 비웁소서. ᄒᆞᆫ 방올이 떨어지민 멩(命)과 복이 떨어지는 법 이웨다."

높이 들러 ᄂᆞᆽ이 시르르 시르르 시권제삼문 받아놓고 먼 문 뱃기 나가젠 ᄒᆞ난 버무왕이 말 을 ᄒᆞ뒈

"소서중아, 소서중아, 너는 ᄂᆞᆷ의 ᄊᆞᆯ을 공이 먹고 가겠느냐? 원천강 ᄉᆞ주역(袁天綱四柱易) 을 가졌느냐? 우리 집의 아ᄃᆞᆯ 일곱성제[七兄弟]가 뒈여지니 원천강 ᄉᆞ주팔ᄌᆞ나 ᄀᆞᆯ리와 보라."

"어서 걸랑 그럽소서."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영팔괄(五行八卦) ᄀᆞᆯ리완 보난 우[上]으로 ᄂᆡ성젠[四兄弟] 원천강(袁天綱) ᄉᆞ주팔ᄌᆞ(四柱八字)가 조아져 입장(入丈) 시견 잘곰 사는 듯ᄒᆞ옵고, 알[下]로 ᄉᆡ정젠 원천강 ᄉᆞ주가 ᄀᆞᆺ어져 열다섯 십오세 ᄉᆞ구전멩(四苦定命)이 매길 듯ᄒᆞᆸ네다."

그 말 떨어지기 전에 소사중은 먼 올레의 정[1] 하마석[2] 아래로 굽어 인사드리며,

"소승 절을 하며 뵈옵니다."

"어느 절 대사이냐?"

"동관음사 은중전 대사님은 부처를 지키고 있고, 저는 소사가 됩니다."

"어찌하여 이곳 가까이에 찾아왔느냐?"

"헌 불당도 떨어지고 헌 절도 떨어져 인간세상에 내려서서 권제삼문[3] 받아다가, 헌 불당과 헌 절을 고쳐 다시 짓고, 수명 없는 자손에게 수명도 주고 복 없는 자손에게 복도 주고, 자식 없는 자손에게 자식 환생을 주려고 권제삼문 받으러 내려섰소이다."

"어서 가까이 들어와 권제삼문 받아가라."

"높이 들어 낮게 시르르 시르르 부으십시오. 한 방울이 떨어지면 수명과 복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높이 들어 낮게 시르르 시르르 권제삼문 받아놓고 먼 문 밖에 나가려 하니, 버무왕이 말을 하되,

"소사중아, 소사중아, 너는 남의 쌀을 공짜로 먹고 가겠느냐? 원천강 사주역을 가졌느냐? 우리 집의 아들 일곱 형제가 있으니 사주팔자나 가려 점쳐 보아라."

"그럼 그렇게 하옵소서."

"단수육갑 오행팔괘[4]로 점쳐 보니 위로 사 형제는 사주팔자가 좋아 결혼시켜 잘 사는 듯하고, 아래로 삼 형제는 사주가 나빠 열다섯 살에 정해진 수명이 끝일 듯 하옵니다."

1) 집 출입로에 대문 대신 가로 걸쳐 놓은 굵은 나뭇대.
2) 말에서 오르 내릴 때 발돋움에 쓰려고 대문 앞에 놓은 큰 돌.
3) 스님에게 보시하겠다고 약정하는 문서.
4) '단수육갑'은 육십갑자, '오행'은 음양오행설, '팔괘'는 주역에서 온 말로, 여기에서는 운세를 점칠 수 있다는 능력을 뜻하는 말로 쓰임.

"이야, 소서중[小師僧]아, 너는 놈의 ᄌᆞ식 멩(命)과 복 떨어진 중만 알고 멩과 복 잇을 순 엇겠느냐?"

"예, 잇을 수 있습네다. 이 아이덜 싀성제가 중이 헹착(行着) 출려아정 우리 법당에 오랑 연삼년(連三年) 법당(法堂) 공양허염시민 멩(命)과 복(福)이 잇어질 듯ᄒᆞ옵네다."

"이게 무슨 말일러냐? 양반(兩班)의 집이 ᄉᆞ당공ᄉᆞ(祠堂空事) 나는구나."

버무왕이 ᄀᆞᆷ곰이 셍각ᄒᆞ니,

"죽음 삶이 맛사리야. ᄉᆞ당공ᄉᆞ고 아무거고 설운 아기 멩(命)과 복이나 잇어보저."

대공단고칼로 싀성제 머리 박박 가까놓고 중의 헹착(行着) 출련 금마답 내여노난 중의 헹착이 넉넉ᄒᆞ다. 아바님이 물멩지 싀필[三疋] 강멩지 싀필 벡비단(白緋緞) 싀필 삼삼(三三)은 구(九) 아옵필을 내여주고 은기 놋기[銀器鍮器]를 내여주난 싀성제가 주충ᄀᆞ뜬 눈물을 [illegible] 지듯 지여가멍,

"아바님아, 어머님아, 무슨 날에 우리 싀성젤 솟아내완 멩(命)과 복 ᄍᆞ르게 내웁데가?"

싀성제가 홀목 비여잡안 대상통곡(大聲痛哭) 울어가멍,

"아바님아, 살암십서. 어머님아, 잘 살암십서."

부모 성제간 이별ᄒᆞ고 싀성제(三兄弟)가 소서중[小師僧] 뒤를 ᄄᆞ롸 동개남 상주절[東觀音常住寺] 소곡소곡 올라갑데다.

"얘야, 소사중아. 너는 남의 자식 명과 복이 떨어진 줄만 알고, 명과 복을 이을 수는 없겠느냐?"

"예, 이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삼 형제가 중의 차림새로 차려서, 우리 법당에 와 삼 년 동안 법당 공양을 하고 있으면 명과 복이 이어질 듯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반의 집 사당에 헛일이 나는구나."

버무왕이 곰곰이 생각하니,

"죽음과 삶이 맞서랴. 사당에 헛일이고 뭣이고 설운 아기들 명과 복이나 이어보자."

대공단고칼[1]로 삼 형제 머리를 박박 깎아 놓고 중의 차림새로 차려 마당에 내어놓으니, 중의 차림새에 넉넉하게 어울린다. 아버님이 물명주[2] 세 필, 강명주[3] 세 필, 백비단 세 필, 삼삼은 구, 아홉 필을 내어 주고 은그릇 놋그릇을 내어주니, 삼 형제가 [illegible]주 같은 눈물을 끊임없이 흘려가며,

"아버님아, 어머님아, 무슨 날에 우리 삼 형제를 낳아서 명과 복을 짧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삼 형제가 팔목을 부여잡아 대성통곡으로 울어가면서,

"아버님아, 계십시오. 어머님아, 잘 살고 계십시오."

부모 형제간에 이별하고 삼 형제가 소사중 뒤를 따라 동관음 상주사로 소곳소곳 올라갑니다.

---

1) 중의 머리를 깎는 칼이라 함.
2) 엷은 남빛 명주실로 짠 천.
3) 원문의 '강명주'는 명주의 일종이거나, 또는 '그냥 명주'의 뜻인 듯.

2. 버무왕 삼 형제가 부모님을 찾아 절을 떠나는 길에 과양생이 각시를 마나 죽임을 당한다

가는 날부떠 푼처[佛陀]님에 선신(現身)ᄒᆞ고 원불수룩(願佛水陸) 드리는 게 날과 ᄃᆞᆯ이 지나져 헤[年]가 근당ᄒᆞ고 보니, 연삼년(連三年) 뒈는 날은 법당(法堂) 뱃기 나오란 단풍(丹楓) 놀이 ᄒᆞ단 보난, 난디읏이 아바님 어머님 셍각나고 성제간 셍각이 간절허여 대상통곡(大聲痛哭) 울다가 큰 성님이 말을 ᄒᆞ뒈,

"설운 동싱(同生)덜아 영 앚앙 울어본덜 무신 소까(效果) 이시리야. 법당(法堂)에 들어강 대서(大師)님전 일러두고 아방국 어멍국 ᄎᆞᆽ아강 봐오기 어쩔러냐?"

"어서 걸랑 기영ᄒᆸ서."

법당에 들어가 대서님에 일렀더니,

"설운 아기덜 어서 가기랑 가라마는 과양(光陽)땅을 멩심(銘心)허영 지나가라. 멩심 아니허영 가당은 우리 법당에 오라근 연삼년(連三年) 법당 공양(供養)ᄒᆞ신 것이 무궁허ᄉᆞ(無功虛事)가 뒈여진다."

"어서 걸랑 그럽소서."

대서(大師)님이 내여주는 게 ᄉᆡ성제 아젼 온 물멩지[水禾紬] 강멩지 벡비단(白緋緞) 은기(銀器) 놋기[鍮器] 내여주니 삼성제가 등에 지고 동경국을 향허연 소곡소곡 ᄂᆞ립데다.

동경국을 ᄂᆞ려사단 과양땅을 들어사난 난디읏인 시장끼가 ᄒᆞᆫ이 엇어 앞데렌 ᄒᆞᆫ 자국 뒤 테렌 두 자국 더 갈 수가 엇어져. 삼성제가 질ᄀᆞ[路邊]의 앚아둠서 대상통곡(大聲痛哭) 울다네 족은아시가 말을 ᄒᆞ뒈,

가는 날부터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수륙제[1] 불공을 드리는 것이 날과 달이 지나 한 해가 가까워져 오니, 삼 년째 되는 날에는 법당 밖에 나와 단풍놀이를 하다 보니, 난데없이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나고 형제간 생각이 간절하여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큰형님이 말을 하되,

"불쌍한 동생들아, 이렇게 앉아 울어본들 무슨 효과가 있으리. 법당에 들어가 대사님께 말씀드려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 보고 오는 것이 어쩌겠느냐?"

"어서 그렇게 하옵소서."

법당에 들어가 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설운 아기들아. 어서 가기는 가랴마는 광양 땅[2]을 조심하여 지나가라. 조심하지 않고 가다 가는 우리 법당에 와 삼 년 동안 법당에서 공양한 것이 공이 없이 헛된 일이 된다."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대사님이 내어 주는 게 삼 형제가 가져온 물명주, 명주, 백비단, 은그릇, 놋그릇을 내어 주니 삼 형제가 등에 지고 동경국을 향하여 소곳소곳 내려갑디다.

동경국을 내려가다가 광양 땅을 들어서니, 난데없이 시장기가 한없이 나서, 앞으로 한 발자국 가면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나 도저히 더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삼 형제가 길가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작은 아우가 말을 하되,

---

1)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과 아귀(餓鬼)를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 의례.

2) 한라산 남쪽의 광양리(壙陽里). 죽음에 이르는 땅인 한라산 동개남절과 이승의 땅인 성안의 중간 지점에 있어, 에삶과 죽음의 경계로 인식된다고 함.

"설운 성님(兄—)덜아 우리 등에 진 물건 아무아피 강 주어도 식은 밥에 물즘이는 줄 듯ᄒ우다. 저 집이 천아와가(天下瓦家) 부젯집[富者家] ᄀ타지니 식은 밥 물즘이나 얻어먹엉 가기 어쩝네까?"

설운 큰성님이 질(第一) 문저 과양셍이 집의 먼 문깐 들어사멍

"소승 절이 베옵네다."

이 말 들은 과양셍이 각시[妻] 청천(天庭)에 ᄑ[腕]을 걸천 누엇다네 와들랑이 일어나멍,

"이 중 저 중 괘씸ᄒ 중이로고나. 양반(兩班)의 집을 몰란 왔구나. 수벨캄(首別監)아, 수장남아. 어서 나왕 이 중 귀 심어 엎찔렁 금마답[庭]에 놩 멍석걸이나 ᄒ라."

큰성님 욕을 보아 나옵데다. 버금 셋성님[仲兄]이 들어가도 욕을 보아 나오고, 마지막 족은아시가 들어가난 과양셍이 각시가 말을 ᄒ되,

"야, 이거 뒐 쳇 일가? 아니 뒐 [illegible] ᄒ를 앗아 중이 싓썩이나 온댄 말이 무슨 말고?"

그 말 끗데 족은아시가 말을 ᄒ뒈,

"상전(上典)님아 그리 마옵소서. 우리도 본레(本來) 중이 아니우다. 아방국[父]은 동경국으로ᄇ서 원멩(元命)이 ᄍ라지댄 ᄒ난 동개남(東觀音) 상저절[常住寺]에 간 멩(命)과 복을 잇어 오는 질[路]에 시장끼가 ᄒ이 엇언 식은 밥에 물즘이나 얻어 먹저 주당(住堂)에 들었수다."

그 말 끗데 과양셍이각씨가 정짓간엘 들어가더니 개 먹단 박세기 식은 밥에 물 삼 술을 허연 내여주난 정짓무뚱에서 삼성제가 싀술썩 아옵술을 ᄂ누와 먹었더니 눈이 베롱허 여지고 산도 넘고저라 물도 넘고저라 ᄒ옵데다.

"설운 형님들아, 우리 등에 진 물건을 아무에게 가 주어도 식은 밥에 물 말아 놓은 것이라도 줄 듯하외다. 저 집이 천하의 기와집에 부잣집 같으니 물 말은 식은 밥이라도 얻어먹고 가는 것이 어떻소?"

설운 큰형님이 제일 먼저 과양생이[1] 집 먼 문간에 들어서면서,

"소승 뵈옵니다."

이 말 들은 과양생이 각시가 이마에 팔을 얹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 중 저 중 괘씸한 중이로구나. 양반의 집을 모르고 왔구나. 수별감아, 수머슴아. 어서 나와 이 중 키 잡고 엎어다가 마당에 놓아 멍석말이나 하여라."

큰형님 욕을 보고 나옵디다. 다음에 둘째 형님이 들어가도 욕을 보고 나오니, 마지막 작은 아우가 들어가니, 과양생이 각시가 말을 하되,

"야, 이거 되려는 일인가? 아니 되려는 일인가? [illegible] 중이 셋씩이나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그 말 끝에 작은 아우가 말을 하되,

"상전님아, 그리 마옵소서. 우리도 본래 중이 아니외다. 아버지는 동경국 왕이고, 원래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니, 동관음 상주사에 가서 명과 복을 이어 오는 길에 시장기가 한없이 나 물 말은 식은 밥이라도 얻어먹고자 댁에 들렀소이다."

그 말 끝에 과양생이 각시가 부엌엘 들어가더니 개가 먹던 바가지에 식은 밥 세 숟가락을 놓아 물 말아 내어 주니, 부엌문 앞에서 삼 형제가 세 숟가락씩 아홉 술을 나누어 먹었더니, 눈이 뜨여 정신이 나면서 산도 넘을 듯이 물도 넘을 듯이 합니다.

1) '광양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

큰성님이 말을 ᄒᆞ뒈,

"우리 놈의 음식(飮食) 공이 먹엉 목 걸리고 등[背] 걸리는 법이니, 등에 진 물멩지 강멩지 벡비단 삼삼은 구 아옵자(九尺)만 그차 놓고 식은 밥 물즘이 깝이 나 디려두고 가기 어쩌느냐?"

"어서 걸랑 기영ᄒᆞᆸ서."

싀성제[三兄弟]가 석자썩 아옵자[九尺]를 그차 놓고 과양셍이아피 앗아가난 과양셍이 각시가 아무말 웃이 안으로 들어간계 처너월을 둘러 쓰고 나완,

"ᄆᆞ음[心] 좋고 뜻 조은 도련(道令)님아 어서 어서 들어옵서. 안사랑도 조아지니 아픈 다리나 쉬였당 늴(來日)날랑 가옵소서."

이 말 들은 싀성젠 몸도 피곤허여지고 아픈 다리나 쉬영 가젠 사랑방을 들어가 앚았더니, 과양 셍이각씨가 도용칠반(統營漆盤) 귀얌약주 지육안주(猪肉按酒)를 출려아전,

"이 술 ᄒᆞᆫ잔 드옵소서. ᄒᆞᆫ 잔을 먹으민 천년(千年)을 살곡 두 잔을 먹으민 만년을 살곡 석 잔을 먹으민 구만년(九萬年)을 사옵네다."

멩(命)과 복(福)이 잇어진댄 ᄒᆞ는 ᄇᆞ름에 석 잔썩 아옵 잔을 ᄂᆞ누와 먹었더니 공복(空腹)엣 술이라 술이 ᄃᆞᆷ뿍 취허연 동(東)데레도 빗씩 서(西)레레도 빗씩, 싀성제가 머리 간 디 발가고 발 간디 머리 가, 동서(東西)레레 자빠져시난, 과양셍이 각씨가 상고팡(上庫房)에 ᄃᆞᆯ려들언 삼 년 묵은 ᄎᆞᆷ지름을 비와단 정동화리(靑銅火爐) 은단숫불에 오송오송 ᄌᆞ꾸와단 웬귀 [左耳]로 ᄂᆞ단귀[右耳]레 소로록 질어가난 싀성제[三兄弟]가 얼음산[氷山] 구름 녹듯 어멍 아방엣 말도 못허연 죽읍데다.

큰형님이 말을 하되,

"우리가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고는 목 걸리고 등 걸리는 법이니, 등에 진 수화주, 명주, 백비단을 삼삼은 구 아홉 자만 끊어 놓고, 물 말은 식은 밥값으로라도 드려 두고 가는 것이 어쩌느냐?"

"그것일랑 그렇게 하십시오."

삼 형제가 석 자씩 아홉 자를 끊어 놓고 과양생이 각시에게 가져가니, 과양생이 각시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푸른 너울[1]을 둘러 쓰고 나와서,

"마음 좋고 뜻 좋은 도련님아, 어서어서 들어오십시오. 안 사랑방도 좋으니 아픈 다리나 쉬었다가 내일엘랑 가옵소서."

이 말 들은 삼 형제는 몸도 피곤하고 아픈 다리나 쉬어가려고 사랑방에 들어가 앉았더니, 과양생이 각시가 통영칠반에 키한 약주와 돼지고기 안주를 차려서,

"이 술 한잔 드옵소서. 한 잔을 먹으면 천 년을 살고, 두 잔을 먹으면 만 년을 살고, 석 잔을 먹으면 구만 년을 사옵니다."

명과 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바람에 석 잔씩 아홉 잔을 나누어 먹었더니, 빈속에 마신 술이라 담북 취하여 동쪽으로도 휘청 자빠지고 서쪽으로도 휘청 자빠지고, 삼 형제가 머리 간 데 발 가고, 발 간 데 머리 가, 동서쪽으로 자빠집니다.

과양생이 각시가 위 곳간에 달려들어 삼 년 묵은 참기름을 부어다가 청동화로 잘 달아오른 숯불에 오송오송[2] 졸여서 왼 키로부터 오른 키로 소로록 부어가니, 삼 형제가 얼음산에 구름 녹듯 어머니 아버지 하는 말도 못하고 죽습디다.

1) 여자가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옷.
2) 소량의 액체가 잦아드는 모습.

"아니 보던 제물(財物)이여. 아니 보던 물건이여!"

물멩지 강멩지[明紬] 벡비단(白緋緞) 은기 놋길[銀器鍮器] 과양셍이 각씨 금동쾌상(金銅櫃床) 을 아놓고 절궁절칵 디려놓아 이 밤 저 밤 개 고넹이[猫] 좀잘 때, 과양셍인 양둑지[兩肩]에 ᄒᆞ나썩 두울[二]을 둘러메고 과양셍이 각신 ᄒᆞᆫ둑지에 ᄒᆞ날 둘러메연 버무왕 아ᄃᆞᆯ 싀성제(三兄弟) 죽은 시첼 주천강(酒泉江) 연내못[蓮花池]듸 수중영장(水中靈葬) ᄒᆞ옵데다.

"안 보던 재물이여. 안 보던 물건이여!"

물명주, 명주, 백비단, 은그릇, 놋그릇을 과양생이 각시 금동 궤짝을 열어놓고 절커덩 들여놓고, 이 밤 저 밤사이에 개 고양이도 잠잘 때, 과양생이 두 어깨에 하나씩 둘을 둘러메고, 과양생이 각시는 한 어깨에 하나를 둘러메어 버무왕 아들 삼 형제 시체를 주천강 연화못 물속에 장사시켜 버립디다.

3. 꽃과 구슬로 변한 버무왕 삼 형제의 시신을 과양생이 각시가 삼키고 삼 형제를 낳는다

ᄒᆞ를[一日] 이틀 칠일이 지나가니, 거동(擧動)이나 보저 서대구덕 연서답 담아아전 주천강(酒泉江) 연내못[蓮花池]디 연서답 가고 보니 난디읏인 삼석백이(三色-) 고장[花]이 앞의 고은 고장은 벙실벙실 웃는 고장[花], 가운디 오는 고장 비새ᄀᆞ찌 우는 고장, 메말짜이 오는 고장 풋죽 ᄀᆞ뜬 용심을 내는 고장[花]. 과양셍이 각시,

“이 고장[花]아, 저 고장아 나신디 테운 고장이건 나 앞데레 어서 오라.”

물막개로 물을 앞데레 ᄃᆞᆼ기여가난 삼석(三色)백이 고장[花]이 과양셍이각시 앞데레 들어오난, 서답 바구리예 오독독 거꺼놓고 집으로 아전 완, 앞문전[前門前]에 ᄒᆞ나 걸고 뒷문 전에 ᄒᆞ나 걸고 생깃[上柱] 밋디 ᄒᆞ나 걸었더니, 앞문전에 건 고장[花]은 과양셍이 금마답[庭]데레 나 올 때마다 앞살짝도 박박 메곡 뒷살짝도 박박 메곡, 뒷문전[後門前]에 걸은 고장[花] 과양셍이 각씨 장항 뒤에 나고 들 때 앞살짝 뒷살짝 박박 메곡, 생깃밋디 건 고장은 과양셍이 밥상 받을 때마다 앞살짝 뒷살짝 박박 메니 과양셍이 각시가,

“이 고장[花] 저 고장 곱기는 곱다마는 헹실(行實)이 괘씸ᄒᆞᆫ 고장이여.”

손바닥에 놘 복복 보비연 정동화리(青銅火爐) 은단숫불 잡아진으난 얼음산에 구름녹듯 ᄇᆞ스슥기 카아간다.

하루 이틀 이레가 지나가니, 과양생이 각시는 거동이나 보려고 대바구니에 빨래를 담고 주천강 연화못에 빨래하러 가 보니, 난데없는 삼색 박이 꽃이 떠 오는데, 앞에 오는 꽃은 벙실벙실 웃는 꽃, 가운데 오는 꽃은 슬픈 새처럼 우는 꽃, 맨 끝에 오는 꽃은 팥죽같이 화를 내는 꽃입니다.

과양생이 각시가,

“이 꽃아, 저 꽃아. 네가 타고난 꽃이면 내 앞으로 어서 오라.”

빨랫방망이로 물을 앞으로 당겨 가니 삼색 박이 꽃이 과양생이 각시 앞으로 들어옵니다.

빨래 바구니에 오도독 꺾어 놓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앞문에 하나 걸고, 뒷문에 하나 걸고, 상주 기둥[1] 밑에 하나 걸었더니, 앞문에 건 꽃은 과양생이가 마당으로 나올 때마다 앞 살쩍[2]도 박박 매고 뒤 살쩍도 박박 매고, 뒷문에 건 꽃은 과양생이 각시가 장독대에 나가고 들어올 때 앞 살쩍도 뒤 살쩍도 박박 매고, 상주 기둥 밑에 건 꽃은 과양생이가 밥상을 받을 때마다 앞 살쩍 뒷 살쩍을 박박 매니, 과양생이 각시가,

“이 꽃 저 꽃이 곱기는 곱다마는 행실이 괘씸한 꽃이여.”

손바닥에 놓고 복복 비벼서 청동화로 은 같은 숯불에 집어넣으니, 구름산에 얼음 녹듯 바시식 타 버립니다.

1) 상방(마루방)과 큰방 구들 사이의 기둥.
2) ‘살쩍’은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

혼쏠 시난 뒤칩[後家]의 청태국 마구할망 불 담으레 와시난 과양셍이각시 말을 혼뒈,

"사랑방에 정동화리(靑銅火爐) 근엉 봅서. 불이 신디 으신디."

청태국마구할망 정동화리 근언 보난 불은 엇어지고 삼석(三色)백이 구슬[玉]만 오골오골 잇어지니

"과양셍이 각시야, 불은 읏고 삼석백이 구슬만 시어지다."

"아이고, 그거 나 구슬이우다."

과양셍이각시 북혼게 빼여앗나.

청태국마구할망 집으로 가부난 과양셍이각시 각진잔판 노안 요레 궁글력 저레 궁글력 혼단,

입에 물언 이레 도골 저레 도골 놀리단보난 삼석(三色)백이 구슬이 얼음산 구름 녹듯 목 알[下]레레 소록기 느립데다.

혼를 이틀 하는 게 연석달([illegible]三月) [illegible]여가난 과양셍이 각시 유태(有[illegible]) [illegible]가 [illegible]헤인 준[illegible](準朔)을 채우고 보난, 혼를날은 과양셍[illegible] 각[illegible] 구들 늬구석 팽팽 돌멍,

"아야 베여! 아야 베여!"

죽을 亽경(死境) 일러가난 과양셍이 청태국마구할망아피 간,

"우리 집의 부인님이 죽을 亽경 뒈여시메 어서 오랑 보아 줍서."

청태국할마님 드련 오란 과양셍이 각시 허릴 누리쓸어보난 아기 머린 볼써 돌련 구에문을 열려시니,

"혼 맥(脈)을 씨라."

조금 있더니 뒷집의 청태국마고할멈[1]이 불을 빌러 오니까, 과양생이 각시가 말을 하되,

"사랑방의 청동화로를 헤쳐 보소. 불이 있는지 없는지."

청태국마고할멈이 청동화로를 헤쳐 보니 불은 없고 삼색박이 구슬만 오골오골 있었으니,

"과양생이 각시야, 불은 없고 삼색 구슬만 있구나."

"아이고, 그건 내 구슬이외다."

과양생이 각시가 얼른 빼앗습니다.

청태국 마귀할멈이 집으로 가 버리니, 과양생이 각시는 구슬을 각진장판[2]에 놓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입에 물고 이리 도골 저리 도골 놀리다가 보니, 삼색 구슬이 구름산에 얼음 녹듯 목 아래로 소곳[illegible]가[illegible]립니다.

하[illegible] 이틀 지나[illegible] 것이 석달을 이어가니 과양생이 각[illegible]가 태[illegible] 있구나. 달수를 채우고 보니, [illegible] 과양생이 각시가 방 네 구석을 팽팽 돌면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죽을 사경에 이르러간다. 과양생이 청태국마고할멈에게 가서,

"우리 집의 부인이 죽을 사경에 당하였으니 어서 와 보아 주소."

청태국 할멈을 데리고 와 과양생이 각시 허리를 내리 쓸어보니, 아기 머리는 벌써 돌고 자궁이 열렸으니,

"한번 힘을 내라."

1) 제주 신화에서 주인공의 조력자로 나오는 인물로 '탱태국'은 중국의 불교 성지인 '천태산(天台山)'에서 마고할멈은 중국 전설의 선녀인 '마고(麻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2) 유기름 칠한 좋은 장판.

ᄒᆞᆫ 맥을 씨연 보난 아ᄃᆞᆯ이 솟아나고, 두 맥을 씨연 보난 셋아ᄃᆞᆯ[次男]이 솟아나고, ᄉᆡ 맥을 씨연 보난 족은 아ᄃᆞᆯ[末男] 솟아나, ᄒᆞ를앗아 아ᄃᆞᆯ ᄉᆡ성제[三兄弟] 솟아나옵데다.

과양셍이 반갑고 지꺼진 ᄇᆞ름에 이런 일이 어디 시리. 우리 나라 상시관(上試官)에 보고(報告)를 허여놓고 조은 상급(賞給)이나 ᄂᆞ려올까 바레엿더니 ᄌᆞ식(子息) ᄉᆡᆺ썩 나는 삼승[三神]은 개[犬] 삼승이옌 허연 ᄒᆞᆫᄃᆞᆯ[一個月] 체[糖] 석 섬[三石]썩 환상(還上)을 ᄂᆞ리옵데다.

과양셍이 아ᄃᆞᆯ ᄉᆡ성제 홋[單] 일곱설 나는 헤 삼천서당(山泉書堂)에 노난 선성(先生)님이 하늘천 ᄒᆞ민 ᄉᆡ성젠 따지(地) ᄒᆞ멍 초초멩장(初出猛將)이 뒈옵데다.

한 번 힘을 내 보니 아들이 태어나고, 두 번 힘을 써 보니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세번 힘을 써 보니 작은아들이 태어나 하루에 아들 삼 형제가 태어납디다.

과양생이 반갑고 기쁜 나머지 이런 일이 어디 있으랴 하고 우리 나라 상시관[1]에 보고를 해 놓고, 좋은 상이나 내려올까 바랐더니, 자식을 셋씩 낳는 삼신[2]은 개 삼신이라 하여 한 달에 겨 석 섬씩 환자[3]로 내어 줍디다.

과양생이 아들 삼 형제 홑 일곱 살 나던 해에 산천서당[4]에 보내니, 선생님이 '하늘 천' 하면 삼 형제는 '따 지' 하면서, 처음부터 맹장이 됩디다.

1) 과거 시험을 관리하고 감독하던 벼슬아치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2) 아기를 점지한다는 세 신령
3)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다시 받아들이던 일.
4) 제주 건입동에 산천서당(山泉書堂)이 있었음.

4. 과양생이의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나, 급사하자 과양생이 각시가 소지를 올린다

열다섯 십오세 나는 헤, 상시관(上試官)에 과거 올라가니 삼천(三千)선비 낙방(落榜) 뒈고 삼성제 과거(科擧) 띠와, 높이 뜬 건 청일산(靑日傘) 늦이 뜬 건 흑일산 어수웨(御賜花) 비수에(妃賜花) 삼만관숙(三班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거느련 관데청(觀德亭) 마당 오란 ᄉᆞ또(使道)에 선신[現身]ᄒᆞ고 나문밧[南門外] 동산 치ᄃᆞᆯ아 올라간다.

그날 아적[朝] 과양셍이각시 ᄉᆞ망시리 끅베치메 둘러입고 동안[東軒]마당 하니 북방을 나산 보난 과젓기(科擧旗)가 둥둥 떠시니 과양셍이 각시 말을 ᄒᆞ뒈,

"ᄋᆞ따, 어떤 놈의 집안은 산천(山川)이 조안 과걸 띠완 오는고. 우리 집의 아ᄃᆞᆯ덜은 어디 간 놈의 손땅에나 죽어신가, 발땅에나 죽어신가. 절로 과거띠와 오는 걸랑 나 앞의서 인명(人命)이나 축ᄒᆞ곡[祝告] 모고마지나 싀도막에 부러지라."

후욕(詬辱)이 떨어지기 전의 무지럭총각이 과양셍이 집안테레 ᄃᆞ려들멍,

"과거 기별입네다."

과양셍이 부베간(夫婦間),

열다섯 살 되던 해, 상시관을 따라 과거를 보러 올라가니, 삼천 선비는 낙방하고 삼 형제가 과거에 붙어 돌아오는데, 높이 뜬 것은 푸른 일산, 낮게 뜬 것은 검은 일산, 어사화 비사화[1] 삼반관속[2] 육방하인[3]을 거느려 관덕정[4] 마당에 와 사또에게 인사하고, 남문밖 동산을 치달아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과양생이 각시는 재수 좋게[5] 베치마[6]를 둘러 입고, 동헌 북쪽 마당을 바라보니, 과거 급제 깃발이 둥둥 떠 있었으니, 과양생이 각시가 말을 하되,

"이따, 어떤 놈의 집안은 산천[7]이 좋아서 과거에 급제하여 오는고. 우리 집의 아들들은 어디 가서 남의 손등에나 죽었는가, 발등에나 죽었는가. 절로 과거에 급제하여 오는 것은 내 앞에서 목숨이나 없어지고, 모가지나 세 도막으로 부러지거라."

욕 소리가 떨어지기 전에 무지렁이 총각이 과양생이 집안으로 달려들면서,

"과거 기별입니다."

과양생이 부부가 서로 즐겨하며,

---

1) '어사화'는 문무과의 급제자에게 임금이 내리던 종이꽃. '비사화'는 왕비가 내리던 종이꽃이라는 뜻인데, 운율을 맞추기 위해 나란히 든 것임.
2) 지방의 관아에 속한 향리, 장교(將校), 관노(官奴), 사령(使令)을 통틀어 이르는 말.
3) 육방에 속한 관노들.
4) 제주시 중심부에 있는 정자.
5) 반어법임.
6) 장례 때 입는 치마.
7) 조상의 묏자리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다. 설운 아기덜 과거 띠완 오는디 아니 놀아 뭣ᄒᆞ리야! 설운 아기덜 일문전(一門前)에 문전코ᄉᆞ(告祀)ᄒᆞ곡 산에 염불(念佛)ᄒᆞ곡 칠일 도문잔치[七日到門宴]ᄒᆞ기 어쩔러냐?"

싀성제 문전(門前)데레 돌려앚전 삼베(三拜) 절을 시겼더니, 초펀(初番) 이펀(二番) 삼펀(三番) 고개를 숙여 머리를 아니들러가난 과양생이 부베간(夫婦間)은 어느제랑 과거 띠완 온 아기 아피 과거선안(科擧見謁)이나 받아보저 생깃밋디 앚아둠서 바레고 지드려도 고갤 아니 들러가난 과양생이,

"이게 어떤 일일러냐?"

ᄃᆞᆯ려들언 큰아ᄃᆞᆯ 머릴 들런 보난 눈ᄁᆞᆼᄌᆞ(瞳子)는 저승으로 돌리고, 셋아ᄃᆞᆯ[次男] 고갤 들런 보 난 입에 게꿈 코에 송인이 오르고, 족은아ᄃᆞᆯ[末男] 고갤 들런 보난 손콥발콥 검은 피가 사았구나.

싀성제 ᄒᆞᆫ날 ᄒᆞᆫ시 ᄉᆞᆺ아나고 ᄒᆞᆫ날 ᄒᆞᆫ시 과걸 띠완, ᄒᆞᆫ날 ᄒᆞᆫ시 죽고보니,

"나 일이여! 나 일이여!"

대상통곡(大聲痛哭) 울다가,

"죽은 ᄌᆞ식 과걸ᄒᆞ민 뭣ᄒᆞ리, 청일산(靑日傘)도 돌아가가. 벡닐산(白日傘)도 돌아가라."

다 돌려 보내여두고 앞 밧디 출병허여 놓고 어느 원(員)에 신원(伸寃)ᄒᆞᆯ 수 엇어 과양생이 각시가 짐칫고을 짐치(金緻) 원님 아피 아척이민 아척소지[朝所志] 낮인 낮소지 저냑[夕] 인 저냑소지, ᄒᆞ를앚아 삼싀번(三番) 석ᄃᆞᆯ 열ᄒᆞᆯ 벡일(百日)을 드려노난, 아옵상지 반[九箱子半]이 넘어간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설운 아기들 과거 급제하여 오는데, 아니 놀아 무엇하랴! 설운 아기들 일문전[1]에 고사를 지내고, 산에 염불하고, 이레 동안 도문잔치[2] 하는 것이 어떠하냐?"

삼 형제를 문전으로 돌려 앉혀서 세 번 절을 시켰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개를 숙여 머리를 안 들으니, 과양생이 부부간에 언제면 과거 급제하여 온 아기에게 과거 인사나 받아보려고 상주 기둥 밑에 앉은 채로 보며 기다려도 고개 안 드니, 과양생이,

"이게 어떤 일이냐?"

달려들어 큰아들 머리를 들러 보니 눈동자는 저승으로 돌리고, 둘째 아들 고개를 들려 보니 입에 거품 물고 코에 송인[3] 들고, 작은아들 고개를 들러 보니 손톱 발톱에 검은 피가 서 있습니다.

삼 형제가 한날한시에 태어나고 한날한시에 과거 급제를 하고, 한날한시에 죽고 보니,

"내 일이여! 내 일이여!"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죽은 자식 과거 급제하면 무엇하리. 푸른 일산도 돌아가라. 흰 일산도 돌아가라."

다 돌려보내 두고 앞반에 임시로 묻어 놓고, 어느 원님에게도 원통함을 풀 수 없어, 과양생이 각시가 김칫고을 김치[4] 원님 앞에 찾아가서, 아침이면 아침 소지[5], 낮에는 낮 소지, 저녁이면 저녁 소지, 하루에 세 번 석 달 열흘 백일을 드려 놓으니, 아홉 상자 반이 넘어갑니다.

1) 삼방(마루방)의 앞쪽 문신.
2)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베푸는 잔치.
3) 방금 죽은 송장의 콧구멍이 거무스름해지는 것.
4) 광해군 때 제주 판관(濟州判官, 1577~1625).
5) 관청에 올리는 청원서.

원님도 이 소지(所志) 절체[結處]를 어찌 ᄒ리 탄복(歎服)ᄒ고 이실 때, ᄒ를 아적[一日朝] 과양셍이각시가 동안마당[東軒庭] 나아산,

"개ᄀ뜬 짐치원(金緻員)아, 개ᄀ뜬 짐치원아, 이 고을을 봉급파직(封庫罷職)ᄒ고 어서 나아가라. 다른 원님 노아근 우리 아ᄃ 죽은 소지(所志) 절체(結處)나 ᄒ키여."

그 말 들은 짐치원님 부인은,

"설운 원님아, 이 욕을 들어 어찌 사오리까? 소지(所志) 절체(結處)나 허여보기 어쩝네까?"

"이 소지 절체를 어찌허여 ᄒ겠느냐?"

"원님아 경말고 원님에 몸받은 관장(官長)이 누구리까?"

"나 몸 받은 관장은 열다섯 설에 ᄉ령방(使令房) 입참(入參)헤야 여레둡 나는 헤에 관장패(官長牌) 등에 지어 문안[門內]에도 아옵 각시[九妻] 문뱃겻[門外]도 아옵각시 이구십팔 여레둡[十八] 각실 허여 사는 똑똑ᄒ고 역력ᄒ 강님(姜林)이가 퉤여진다."

"그러거든 닐(來日) 아즉[朝]부떠 사발통지(砂鉢通知) 돌령 동안(東軒) 마당 게폐문(開閉門)을 올리고 칠일 일뤠[七日]ᄁ지 열관장[十官長] 입참(入參)을 시겨봅서. 어느 관장 ᄒ나 떨어져도 떨어질 때가 실 거메 그 때랑 관장의 궐闕을 뽑앙 죽일팔로 돌령, 저승 염내왕(閻羅王)을 잽혀올티야 이승서 목숨을 바찔티야 문답(問答)을 허염시민 저승 강 염내왕(閻羅王) 잽 혀 오쿠댕 이를 거우다."

원님도 이 소지 처리를 어찌할까 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하루아침 과양생이 각시가 동헌 마당에 나와서,

"개 같은 김치 원님아, 개 같은 김치 원님아, 이 고을을 봉고파직하고 어서 나가거라. 다른 원님 놓아서 우리 아들 죽은 소지 처리나 하겠다."

그 말 들은 김치 원님 부인은,

"설운 원님아, 이 욕을 들어 어찌 사오리까? 소지 처리나 해 보는 것이 어쩌리까?"

"이 소지 처리를 어찌하겠소?"

"원님아, 그리 말고 원님에게 소속된 관장이 누가 있소이까?"[1]

"나에게 소속된 관장으로는 열다섯 살에 사령방에 들어와 열여덟 되는 해에 관장패[2]를 등에 지어 문 안에도 아홉 각시 문밖에도 아홉 각시 이구 십팔 열여덟 각시를 하여 사는 똑똑하고 역력한 강림이가 있소."

"그러거든 내일 아침부터 통지를 돌려 동헌 마당의 개폐문[3]을 열고 이레까지 관장 열 명을 입참[4]시켜 보소서. 어느 관장 하나가 떨어져도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므로, 그때는 관장의 궐[5]을 잡아서 죽일 판으로 돌려가면서, 저승 염라왕을 잡아 올 테냐, 이승에서 목숨을 바칠 테냐, 문답을 하고 있으면 저승 가서 염라왕을 잡아 오겠다고 할 것이외다."

1) 맥락으로 보아 '원'은 정삼품의 제주목사를 가리키고, '관장'은 현감 이하의 수령을 가리키는 듯함.
2) 관장임을 증명하는 나무 패.
3) 감영과 각 고을의 삼문(三門)을 날마다 여닫던 일.
4) 잔치나 제례(祭禮)에 참석함.
5) 참여해야 할 모임 따위에 빠짐.

5. 원님이 강림이를 저승으로 보내 염라왕을 잡아오게 하자, 강림이는 큰 부인을 찾아 하소연한다

짐치원님 부인님 이견(意見)이 그럴듯ᄒᆞ난, 그날 열관장[十官長]안티 게폐문(開閉門)을 올리고 사발통지를 돌려놓고 뒷날 아ᄌᆞᆨ[翌日朝]부떠 열관장 동안(東軒) 마당 입참(入參)을 시견 보난 열 관장이 뜰림엇이 입참이 뒈고 이틀날도 열관장 뜰림이 엇어지고 사을[三日]날도 열관장 뜰림이 엇어지나, 나을[四日] 닷쉐[五日] 엿쉐[六日]ᄁᆞ지도 뜰림 엇어져.

칠일 일뤳날[七日]은 마주막 동 안마당 입참을 시견 보난 강님(姜林)이 ᄒᆞ나가 뒤떨어지옵데다.

그날 강님인 나문밧[南門外] 여ᄃᆞᆸ[十八] 기생ᄒᆞ첩(妓生好妾) 반지어 ᄌᆞᆷ 자게 날이 새는 중 몰라져 강님이 궐(闕)이 나옵데다.

동안(東軒) 마당에선 원님이 급혼 박파도 내여놓고,

"강님이 궐 뻡으라."

박파도는 높은 공덕동산 치ᄃᆞᆯ아 올라산,

"강님이 궐이여!"

삼ᄉᆞ번을 웨여가난 강님(姜林)이가 팔딱 눈을 뜨언 보니 창문 밧[外]이 훤ᄒᆞ게 ᄇᆞᆰ아십데다. 강님이 동안(東軒) 마당 ᄃᆞᆯ려들어 ᄇᆞ레보니 앞의는 섬페 뒤예는 후페(後牌)

"앞밧디 작두(斫刀) 걸라, 뒷밧디 버텅 걸라."

자강놈 불러 칼춤을 추어가고, 강님의 목에는 큰칼을 씨웁데다.

강님이 비새ᄀᆞ찌 울멍 원님에게 말을 ᄒᆞ뒈,

김치 원님은 부인님 의견이 그럴듯하니, 그날 열 관장에게 개폐문을 열고 통지를 돌려놓고, 다음 날 아침부터 열 관장을 동헌 마당에 입참을 시켜 보니, 열 관장이 틀림없이 입참이 되고, 이튿날도 열 관장이 틀림이 없고, 사흗날도 열 관장이 틀림없으며, 나흘 닷새 엿새까지도 틀림없습니다.

칠 일 이렛날은 마지막 동헌 마당에 입참을 시켜 보니, 강림이 하나가 뒤떨어집니다.

그날 강림이는 남문 바깥 열여덟 살 기생 호첩에 빠져서 잠을 자는 것이 날이 새는 줄 몰라 늦어서 참여하지 못합니다.

동헌 마당에서는 원님이 급히 박파도[1] 내어놓고

"강림이가 참여하지 못했으니 뽑으라."

박파도는 높은 공덕동산[2]에 치달아 올라서서,

"강림이가 참여 못했소!"

세 번을 외쳐가니, 강림이가 번쩍 눈을 떠 보니 창문 바깥이 훤하게 밝았습니다. 강림이 동헌 마당으로 달려들어 바라보니, 앞에는 전패[3] 뒤에는 후패가 있고,

"앞밭에 작두를 걸어라, 뒷밭에 형틀을 걸어라."

하면서, 자객놈을 불러 칼춤을 추게 하고 강림의 목에는 큰칼을 씌웁니다.

강림이 슬픈 새처럼 울면서 원님에게 말을 하되,

---

1) 박씨 성의 파도. '파도'는 하급 벼슬인 듯.
2) 제주시 동문(東門) 밖의 고개.
3) 죄인의 앞에 드는 패인 듯.

"원님아 원님아, 강님이는 죽을 목에 들었수다마는 살을 도레(道理)는 엇습네까?"

"그러거든 저승 강 염내왕(閻羅王)을 잽혀올티야? 이승서 목숨을 바칠티야?"

강님이 엇데답ᄒᆞ는 게,

"저승 강 염내왕을 잽혀오리웨다."

강님이 목에는 큰칼도 벗어지고, 저승 본짱을 주는 게 흰 종이[白紙]에 검은 글을 썬 내여 줍데다.

강님이 동안마당 나산 보니,

"나 일을 어찌ᄒᆞ민 좋으리야."

강님이 눈으론 눈물이 한강수(漢江水)가 뒈고 이구십팔(二九十八) 여레ᄃᆞᆸ[十八] 호첩(好妾) 앞의 가도 어느 가속(家屬) ᄒᆞ나 살려 주키엔 ᄒᆞ는 가속 엇어지고 나문밧[南門外] 동산 앚아 ᄀᆞᆼ곰드리 셍각ᄒᆞ니,

"ᄉᆡ갑머리 ᄋᆞᄉᆞᆺ갑에 갈라다완 씨집(嫁)오고 장게(丈家)갈 때 보아난냥 아니 본 큰 부인, 박데(薄待)ᄒᆞᆫ 줴목(罪目)이나 뒈카. 큰부인 집의나 ᄎᆞᆽ앙가저."

큰부인 집을 들어가단 보난 큰부인은 도고방애예 보리 물ᄌᆞᆷ아 놓고 보리방앨 ᄌᆞᇂ단 강님 이가 먼 올레로 들어오라가난,

"이여방에 이여방에, 메정ᄒᆞ고 메정ᄒᆞᆫ 설운 낭군님아, 오ᄂᆞᆯ은 저 올레예 먼 문[遠門]도 ᄋᆞᆯ아십데가? 가시낭도 걷어십데가, 정쌀도 앚아십데가, 어떤 일로 오옵네까?"

강님인 아무 데답(對答) 웃이 사랑방에 들어간 사랑문을 잡아, 머리 우(上)의 이불 더꺼 쓰고 누었더니 강님의 큰부인 엿정은 고정(故情)으로

"나 집 안에 든 소님[客] 어찌 박데허여 보내리야."

"원님아, 원님아, 강림이는 죽을 목에 들었습니다마는 살 도리는 없습니까?"

"그러거든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아 올 테냐? 이승에서 목숨을 바칠 테냐?"

강림이 겁결에 대답을 하는 것이,

"저승 가서 염라왕을 잡아 오겠습니다."

강림이 목에서 큰칼도 벗겨주고, 저승에 가는 증표를 내어주는데, 흰 종이에 검은 글을 써서 내어줍디다.

강림이 동헌 마당을 나서서,

"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

강림의 눈으론 눈물이 한강수가 되고, 이구십팔 열여덟 호첩에게 가도 어느 가속 하나 살려주겠다고 하는 가속 없고, 남문 밖 동산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니,

"세갑머리[1] 여섯 가닥에 갈라땋아 시집오고 장가갈 때 본 후로 안 본 큰부인, 박대한 죄목이나 될까. 큰부인 집에나 찾아가자."

큰부인 집을 들어가다 보니, 큰부인은 절구방아에 보리를 물 말아 놓고 보리방아를 찧다가, 강림이가 먼 올레로부터 들어와 가니,

"이여 방아[2], 이여 방아. 매정하고 매정한 설운 낭군님아, 오늘은 저 올레에 먼 문도 열어 있습디까? 가시나무도 걷혀 있습디까? 정낭도 치웠습디까? 어떤 일로 왔습니까?"

강림이 아무 대답 없이 사랑방에 들어가 사랑문을 잠그고, 머리 위에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더니, 강림의 큰부인이 옛정은 변하지 않은 법으로,

"내 집 안에 든 손님을 어찌 박대하여 보내리."

1) 세 가닥으로 갈라 땋은 머리.
2) 방아 노래의 선후렴구.

진짓상을 출려아전 강님의 누운 방으로 들어가젠 ᄒᆞ난 문을 튼튼 ᄌᆞᆼ가 누어시니,

"이 문 ᄋᆢᆸ서. 이 문 ᄋᆢᆸ서. 남ᄌᆞ(男子)의 대장부가 예ᄌᆞ(女子)의 소철로 그만썩 ᄀᆞᆯ은 말에 노다시령 문을 잡아 눕데가? 이 문 ᄋᆢᆸ서."

아멩 허여도 문을 아니 ᄋᆞᆯ아주난 억지로 문을 허우튼언 들어가 본직 강님이 눈물은 한강수(漢江水)가 뒈고 ᄒᆞᆫ(限)이 읏이 가련ᄒᆞ게 뒈여시난,

"이게 어떤 일입네까? 죽을 일이나 살 일이나 ᄒᆞᆫ 마디만 일러줍서."

그 말 끗데 강님이가 말ᄒᆞ뒈,

"그런 것이 아니라 칠일 상뒤(喪徒)에 동안(東軒) 마당 입참(入參)을 못ᄒᆞ난 궐을 뽑안 저승 강 염내왕(閻羅王)을 잽혀올티야 이승서 목숨을 바칠티야? 엇데답ᄒᆞ는 게 [저]승 [강 염]내왕을 잽혀오키엔 일러졌구나."

그 말 끗데 강님의 부인이 [말]을 ᄒᆞ[뒈],

"아이고, 설운 낭군(郎君)님아, 그만 ᄒᆞᆫ 소지(所志) 절체(結處)를 못허영 탄복을 [ᄒᆞ]네[까]? 그 소 지 절첸 내 ᄒᆞ커메 염레(念慮) 말앙 진짓상을 받읍소서."

진짓상을 차려서 강림이 누운 방으로 들어가려 하니 문을 단단히 잠그고 누워 있으므로,

"이 문 여시옵소서. 이 문 여시옵소서. 남자의 대장부가 여자의 좁은 생각으로 그만큼 말한 말에 언짢게 생각하여 문을 잠그고 누웠습디까? 이 문 여옵소서."

아무리 하여도 문을 안 열어 주므로 억지로 문을 뜯어 들어가 보니, 강림이 눈물은 한강수가 되고 한없이 가련하게 되어 있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 한 마디만 일러주소."

그 말 끝에 강림이가 말을 하되,

"그런 것이 아니라 칠일 모임에 동헌 마당에 입참을 못하니, 궐을 뽑아 저승 가서 염라왕을 잡아 올 테냐, 이승에서 목숨을 바칠 테냐, 야단치는 [마음이] 겁[기]에 대답하는 것이 저승 가서 염라[왕]을 잡[아] 오[겠]다고 말해버렸구나."

그 말 [끝]에 강[림]의 부인이 말을 하되,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그만한 소지 처리를 못해서 걱정을 합[니]까? 그 소지 처리는 내 할테니 염려말고 진짓상을 받으소서."

6. 강림이의 큰부인과 부모님이 강림이가 저승을 갈 수 있도록 차비를 채려 준다

강님이 서른ᄋᆞ돕[三十八] 늿바디 허우덩싹 웃으멍 진짓상을 받아가난 강님의 큰부인은 그 날부떠 상(上)고팡에 들어가 나주영산(羅州靈山) 은엉미(銀玉米)쏠 내여놓고 얼음ᄀᆞ치 구름ᄀᆞ치 도고방애예 노안 능거놓고 물 버므려 쏠은 봉무니 ᄀᆞ를[粉]을 뽓는 것이 ᄀᆞ를도 봉모라지고 봉몬 ᄀᆞ를은 체로 치난 체 알[下]엣 ᄀᆞ를은 ᄌᆞᆷ질긴 ᄌᆞᆷ질아,

강남(江南)서 들어온 중시리 [中甑] 앗다놓고 쳇 징은 문전시리[門前甑餠] 둘쳇 징은 조왕(竈王)시리 싓쳇 징은 강님 이 저승 가멍 먹을 시리, 다 치어 놓고, 강님의 큰부인 연주단발(剪爪斷髮) 신영벵무(身嬰白茆)헤 야 단단이복(單衣服) 게주심ᄒᆞ고 삼덕조왕의 들어간 조왕할마님에 축원(祝願)을 드리뒈

"강님이 저승가는 질이나 인도(引導)허여 주옵소서."

주야장천(晝夜長天) 축원을 ᄒᆞ는 것이 칠일 일뤠[七日] 뒈는 날 처냑[夕]은 강님의 큰부인도 몸 이 고단허여 고개를 수견 독ᄆᆞ립[膝]에 머릴 놓고, 무정눈[無情眼]에 ᄌᆞᆷ[眠]이라 ᄌᆞᆷ이 비쓱ᄒᆞ난 삼덕조왕할마님이 꿈에 선몽(現夢)드리뒈,

"강님의 큰부인아, 어찌 무정눈에 ᄌᆞᆷ을 자겠느냐? 어서 바삐 머릴 들러 나고 보라. 천앙독[天皇鷄]이 ᄌᆞ지반반 울게 뒌다. 강님의 저승 헹찻질[行次路]이 바빠시니 뺄리 강님이 저승으로 내여노라."

강림이 서른 여덟 이빨로 허우덩싹[1] 웃으면서 진짓상을 받아가니, 강림의 큰부인은 그날부터 고방에 들어가 나주 영산 은옥미쌀을 내어놓고 얼음같이 구름같이 씻어 놓고, 절구방아에 넣어 물을 섞어 쌀이 부풀게 하여 가루를 빻으니 가루가 부풀어가니, 부푼 가루는 체로 치니 체 아랫가루는 자잘하기도 자잘하고,

강남에서 들어온 시루를 가져다 놓고 첫 층[2]은 문전에게 바칠 시루[3], 둘째 층은 조왕에게 바칠 시루, 셋째층은 강림이 저승에 가면서 먹을 시루 다 쪄 놓고, 강림의 큰부인은 정성을 다하여 단벌 의복을 새로 갈아 입고, 부엌에 들어가 삼덕조왕할머니[4]에게 축원을 드리되,

"강림이 저승가는 길이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야장천 축원을 하는 것이 칠일 이레 되는 날 저녁은 강림의 큰부인도 몸이 고단하여 고개를 숙여 무릎에 머리를 대고, 무정눈에 잠이라 깜빡 잠이 드니, 삼덕 조왕 할머니가 꿈에 현몽하여,

"강림의 큰부인아, 어찌 무정눈에 잠을 자겠느냐? 어서 바삐 머리를 들러 나가 보아라. 닭이 자지반반[5] 울게 된다. 강림의 저승 행찻길이 바빴으니 빨리 강림이를 저승으로 내 놓아라."

1) 매우 기뻐 입을 크게 벌려 웃는 모양.
2) 시루떡을 찔 때 소를 넣어 뗄 수 있게 만든 첫 층계.
3) 문전신(門前神)에게 올릴 시루떡.
4) '삼덕'은 덕을 셋으로 받쳐 앉힌 솥이란 뜻으로 부엌을 일컬음. '조왕'은 부엌을 맡은 신.
5) 고요한 밤의 닭의 울음 소리.

강님의 큰부인 벌딱 고갤 들언보난 꿈에 선몽(現夢)이 뒈옵데다. 강님의 큰부인 강님이 눈 방으로 둘려들언,

"남인(男人)임아, 어서 즘 께옵소서. 오늘은 저승 헹찻질이 근당(近當)허였수다."

이 말 들은 강님인 눈을 틀 새 읏이 대상통곡(大聲痛哭) 울어가멍,

"이게 무신 말일러냐? 저승을 어떵 가멍 어딜로 가민 조으리야!"

강님의 큰부인이,

"염네(念慮)말고 일어낭 은대양에 세수나 ᄒᆞ옵소서."

세수를 끗ᄆᆞ친 강님이를 금동쾌상(金銅櫃床) 울아놓고 저승입성[冥府衣服] 내여노안,

"이 입성을 입엉 저승으로 어서 갑서."

강님이 저승 헹착 출리난 저[illegible] 헹착[illegible]연ᄒᆞ옵데다. 남방ᄉᆞ주(藍紡紗紬) [illegible]바지 [illegible]ᄉᆞ주(白紡紗紬) 저구리 ᄌᆞ지멩지[illegible] 헹경(一行纏) 벡눅(白綾)보선 섭송메미토[illegible]곡지로 둘을 메고 한산(韓山)모시 두루막[illegible]수와지(藍水禾紬) 적쾌지(赤快子) 운문대단(雲紋大緞) 안 받치고 산안 쉐털 흑두전립(黑頭戰笠) 굴망굴짓 늘망늘짓 허우래비 허튼짓

강림의 큰부인이 벌떡 고개를 들어 보니 꿈에 현몽이 됩디다. 강림의 큰부인은 강림이 누운 방으로 달려들어,

"서방님아, 어서 잠을 깨시오. 오늘은 저승 행찻길이 가까웠사옵니다."

이 말 들은 강림인 눈을 뜰 사이도 없이 대성통곡 울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저승을 어떻게 가며 어디로 가면 좋으리!"

강림의 큰부인이,

"염려 말고 일어나서 은대야에 세수나 하십시오."

세수를 끝마친 강림이를 금동 궤상 열어놓고 저승 의복을 내어놓아,

"이 의복을 입고 저승으로 어서 가소."

강[illegible] 차리니 저승 행차가 완연합디다. [illegible]방사주[1] [illegible]바지, 백방사주[2] 저고리, 자주명주 [illegible]행전[3] [illegible]백릉버선[4], 협수에 미투리[5], 백지[illegible]고, 한산모시 두루마기에 남수화주 적쾌자[7], [illegible]운문대단[8] 안을 받치고, 들소의 털로 만든 흑두전립[9]에, 굴망굴짓 날망날짓[10]에, 허울허울 흩어지는 깃털하며,

1) 남빛이 나는 비단.
2) 흰 비단.
3) 아래에 귀가 달리지 않은 보통 행전. '행전'은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4) 흰빛의 얇은 비단으로 만든 버선.
5) '협수'는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을 받치고 붉은 소매를 달며 뒤 솔기를 길게 터서 지은 군복. '미투리'는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
6) 벗어지지 않게 신을 들메는 일.
7) 남색 비단으로 만든 소매가 없고 등솔기가 허리까지 트인 전투복.
8) 구름무늬 중국 비단
9) '전립'은 군인들이 쓰는 모자,
10) '굴망굴짓'은 전립(戰笠)의 망에 붙여놓은 털인 듯. '날망날짓'은 굴망굴짓에 맞춘 조음구.

ᄂᆞ롸 ᄇᆞ뜬 조심친에 홍삼싱(紅絲繩) 더거리예 관장페(官長牌)는 등에 지고 앞읜 ᄂᆞᆯ용 용제(勇字) 뒤엔 잉금왕 제(王字) 홍ᄉᆞ줄은 ᄋᆢᇁ이 차고 적베지(赤牌旨)는 곰에 차 용두머리 헹착(行次)배 등에 지고 문전(門前) 앞의 내세우니 저승헹착이 완연(宛然)ᄒᆞ옵데다.

강님의 큰부인 말을 ᄒᆞ뒈,

"남인(男人)님아, 동안(東軒)마당에서 원님이 저승 본짱이나 주옵데가?"

"저승 본짱 주어라."

"내여놉서. 보게."

강님이 저승 본짱 내여놓은 건 보난 흰종이[白紙]예 검은 글을 써시난, 강님의 큰부인 우뤠(雷)ᄀᆞ찌 동안(東軒)마당 원님 앞의 ᄃᆞ려들어,

"원님아, ᄒᆞᆫ번 실순(失手) 벵가(兵家)의 상ᄉᆞᆫ(常事)디 우리 나라토 ᄒᆞ를 앚아 삼ᄉᆡ번[三番] 죽 을 일을 헤여 지내는디 강님이 저승으로 염내왕 잽히레 가는디 저승 본짱이 어찌 이리 뒈옵네까? 셍인(生人)의 소지(所志)는 흰 종이에 감[黑]온 글이나 저승 글이야 어찌 이리 뒈옵네까? 붉은 종이예 흰 글을 써 줍서."

원님이

"올타 나가 실수(失手) 뒈엿구나."

붉은 종이에 흰 글 썬 내여 주난, 그 때 내온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사름 죽어 멩전법(銘旌法) 서련허엿수다.

강님의 큰부인 집으로 돌아오난, 강님이가 말을 ᄒᆞ뒈,

"이 입성[衣服]은 어느제 ᄎᆞᆯ려 놓았느냐?"

"불써 영 ᄒᆞᆯ 줄 알고 지어 놨수다."

늘어뜨린 조심친[1]에, 홍사승 더그레[2]에, 관장패는 등에 지고, 앞에는 날랠 용자, 뒤에는 임금왕자, 홍사줄[3]은 옆에 차고, 적패지[4]는 옷고름에 채웠으며, 용 머리를 장식한 베를 등에 지고, 문앞에 내세우니 저승 가는 차림이 분명합디다.

강림의 큰부인이 말을 하되,

"남편아, 동헌 마당에서 원님이 저승에 가는 증표나 주었습디까?"

"저승 증표를 주더라."

"내놓아 보시오. 봅시다."

강림이 저승 증표 내놓는 걸 보니 흰 종이에 검은 글을 썼으니, 강림의 큰부인이 우레같이 동헌 마당 원님에게 달려들어,

"원님아, 한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로 우리나라 임금도 하루 세 번 죽을 일을 하며 지낸다지만, 강림이 저승으로 염라왕을 잡으러 가는데 저승 증표가 어찌 이렇게 됩니까? 산 사람의 소지는 흰 종이에 검은 글이지만 저승 글이야 어찌 이리됩니까?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써 주옵소서."

원님이,

"옳다. 내가 실수했구나."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써 내어주니, 그때 낸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사람이 죽어 명정법[5]을 마련하였지요. 강림의 큰부인이 집으로 돌아오니, 강림이가 말을 하되,

"이 의복은 언제 차려 놓았느냐?"

"벌써 이렇게 될 줄 알고 지어 놨소이다."

---

1) 호박으로 만든 갓끈. 밀화패영(蜜花貝纓).
2) '홍사승'은 죄인을 묶는 붉은 오랏줄. '더그레'는 군사들이 입던 세 자락의 웃옷
3) 홍사승
4) 붉은 천에 저승으로 가야 할 자의 이름이 쓴 것
5) '명정'은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품계·관직·성씨를 기록한 기.

그때 내여 논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인간 사름 죽기 전(前)의 살아신 때 저승입성 호상을 출려놓는 법입네다.

강님의 큰부인 물멩지 전데(明紬戰帶) 허리띠 남인(男人)님 허리에 핑핑 감으멍,

"저승 초군문(初軍門) 가기 전의 급ᄒᆞᆫ 대목 내ᄃᆞ거든 이 물멩지 전데 허리띠 손에 노앙 삼석번[三番] 털뜨리민 알 도레(道理) 있오리다."

아무도 모르게 강님의 큰부인이 본메본짱으로 귀웃인 바농[針] ᄒᆞᆫ 쏨을 관딧섭에 솝 솝이 찔러두고,

"설운 낭군님아 어서 가옵소서."

강님이 부모님에 이별ᄒᆞ니, 아바님이 대상통곡(大聲痛哭) 울어가멍,

"설운 아기 저승 가는디 무엇으로 다리[橋]를 노아 주리?"

아바님 ᄌᆞ식상엣 ᄆᆞ슴[心] 큰 어른의 행수(行爲)라 망근(網巾) 벗어 ᄃᆞ리[橋] ᄒᆞ고, 어머님은,

"설운 아기 저승 가는 디 무엇으로 ᄃᆞ리 노코?"

어머님은 ᄌᆞ식상엣 ᄆᆞ슴(心) 알을 곰추와 주니 속곳 벗어 ᄃᆞ릴 놓고, 큰부인은,

"서룬 낭군(郞君) 저승 가는디 무스걸로 ᄃᆞ릴 노리?"

보선으로 ᄃᆞ릴 놓고 헹경(行纏)으로 ᄃᆞ릴 놓고 다림으로) ᄃᆞ릴 놓고 신[靴]으로 ᄃᆞ릴 노난, 그때 내온 법으로 우리 인간 부베간(夫婦間) 법이라 열 아기 나도 ᄒᆞᆫ 보람 엇는 부베간법 (夫婦間法)입네다.

강님이가 저승갈 땐 신이나 보선이나 신엉 갈 땐 조아도 저승 가고 오랑 벗어불민 신어난 것 답지 아니ᄒᆞᆫ 우리 부베간 법입네다.

그때 내놓은 법으로 우리 인간 법도 인간 사람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저승 의복인 수의를 차려 놓는 법입니다.

강림의 큰부인 물명주 전대 허리띠를 남편님 허리에 핑핑 감으면서,

"저승 초군문[1]에 가기 전에 급한 대목을 당하거든, 이 명주 전대 허리띠를 손에 놓아 세 번 떨어 흔들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

아무도 모르게 강림의 큰부인이 증표로 귀 없는 바늘 한 쌈을 관대 섶에 안 보이게 속으로 찔러두고,

"설운 낭군님아, 어서 가옵소서."

강림이 부모님께 이별하니, 아버님이 대성통곡 울어가면서,

"설운 아기 저승 가는데 무엇으로 다리를 놓아줄까?"

아버님은 자식에 대한 마음 큰 어른의 행위라. 망건 벗어 다리를 놓고, 어머님은,

"설운 아기 저승 가는데 무엇으로 다리를 놓을까?"

어머님은 자식에 대한 마음으로 아래를 감추어 주니 속곳을 벗어 다리를 놓고, 큰부인은,

"설운 낭군 저승 가는데 무엇으로 다리를 놓을까?"

버선으로 다리를 놓고 행전으로 다리를 놓고 대님으로 다리를 놓고 신으로 다리를 놓으니, 그때 낸 법으로 우리 인간 부부간 법이라, 열 아기를 낳아도 하나도 보람이 없는 부부간 법입니다.

강림이가 저승갈 때는 신이나 버선이나 신고 갈 때는 좋아도 저승에 갔다 와 벗어버리면 신었던 것 같지 아니한 우리 부부간 법입니다.

1)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

강님이 팔ᄌᆞ(八字) 궂인 동관유학성제(同官幼學兄弟)라, ᄉᆞ령방(使令房)에 들어간 이별ᄒᆞ고 작별(作别)헤야 저 인정(人情) 많이 받아 강님이가 나아오니, 강님의 큰부인 나문밧[南門外] 동산ᄁᆞ장 전송(餞送) 허여두고 집으로 돌아완 먼 문(門) 안을 들어사난 강님의 큰부인 옷앞섭이 가로 삭산 허꺼지니 강님의 큰부인이 눈물을 흘리멍 탄복ᄒᆞ뒈,

"정든 남인(男人)님광 서로 이별ᄒᆞ난 옷 앞섭이 가로삭산 허꺼지는고나. 나 옷 앞섭을 모도치저."

그날부떠 강님의 큰부인 진신(眞實)ᄒᆞᆫ ᄆᆞ음을 먹읍데다.

강림이처럼 팔자가 궂은 동관[1]이고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공부한 이들이 있더라. 사령방에 들어가 이별하고 작별하여 인정[2]을 많이 받아 강림이가 나오니, 강림의 큰부인이 남문 밖 동산까지 전송하여 두고 집으로 돌아와 먼 문 안을 들어서니, 강림의 큰부인 옷 앞섶이 가로로 이리저리 흩어집디다.[3]

강림의 큰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되,

"정든 남편님과 서로 이별하니 옷 앞 섶이 가로로 이리저리 흩어지는구나. 나의 옷 앞섶을 모으자."[4]

그날부터 강림의 큰부인은 진실한 마음을 먹습디다.

---

1) 비슷한 위치에 있는 벼슬아치.
2) 신에게 바치는 재화(財貨).
3) '옷 앞섭이 허꺼진다' 함은 남편을 여읜 여인이 딴 남자 생각이 난다는 뜻이 됨.
4) 수절한다는 뜻.

7. 강림이가 조왕할멈과 문전할아범의 도움으로 저승에 이르는 길을 안내 받는다.

강님이는 나문밧[南門外] 동산을 올라사니, 어느 게 저승 가는 질[路]이멍 알 수 엇어, 나문밧동 산 앚아 비새ᄀᆞ찌 울단보난 아니보저 앞을 본 게 청태산이 마구할망 불부뜨단 헹기치메 둘러입고 아그랑에작데기 둘러짚어 강님의 앒을 허울허울 걸어감시난 강님이 셍각ᄒᆞ뒈,

"남ᄌᆞ(男子)의 대장부(大丈夫) 헹찻질[行次路]에 예ᄌᆞ(女子)가 지나는 일이, 예ᄌᆞ(女子)라 ᄒᆞᆫ 것 은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邪物)인디 어찌 나 앞을 지나가는고? 저 할마닐 미쳐강 ᄒᆞᆫ 옆이나 삽셍 일르저."

양주먹을 부르쥐여 할마님을 뒤뜨라가난 할마님도 양주먹을 쉐연 휘여지게 앞을 나가난 게 강 님이가 미쳐볼 수 엇어지고 몸은 지쳐난, 할마님도 몸이 다진허여 질 옆의 진 한숨 쉬멍 앚이 난 강님이가 ᄀᆞ만서 셍각ᄒᆞ니,

"저 할마님이 필연(必然) 셍사름[生人]이 아니로고나."

강님이가 들어가멍 할마님아피 허붓이 절을 ᄒᆞ난 할마님이 말을 ᄒᆞ뒈,

"어찌 젊은 도련(道令)이 망년간 노인에게 절을 허염수가?

강님이가 말을 ᄒᆞ뒈,

"할마님 그게 무신 말씀입네까? 우리 집의도 망년간 부모초상(父母祖上)이 있습네다."

"어디로 가는 도련(道令)이우까?"

"난 저승 염내왕(閻羅王) 잽히레 가는 질입네다."

"멀고 먼 질 가는디 정심(點心)이나 ᄂᆞ누아 먹기 어쩝네까?"

강림이는 남문 밖 동산에 올라서니, 어느 것이 저승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어, 남문 밖 동산에 앉아 슬픈 새처럼 울다가 아니보려 해도 앞을 보니, 청태산마귀할멈이 불붙던 행주치마 둘러 입고 오그랑 막대기를 둘러 짚어 강림의 앞을 허울허울 걸어가고 있습디다.

강림이 생각하되,

"남자의 대장부 행차 길에 여자가 지나는 일이, 여자라 한 것은 꿈에만 보여도 사악한 것인데, 어찌 나의 앞을 지나가는고? 저 할머니를 따라가서 한쪽 앞으로 서시도록 이르자."

양주먹을 불끈 쥐어 할머님을 뒤따라가니 할머님도 양주먹을 쥐어 재빨리 앞으로 나가는데, 강림이가 따를 수 없고 몸은 지치는데, 할머님도 몸이 매우 피곤하여 길옆에 긴 한숨 쉬면서 앉으니, 강림이가 가만히 생각하되,

"저 할머님이 필연 산 사람이 아니겠다."

강림이가 들어서면서 할머님에게 넙죽이 절을 하니, 할머님이 말을 하되,

"어찌 젊은 도령이 늙은 노인에게 절을 하오?"

강림이가 말을 하되,

"할머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에도 늙은 부모 조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도령입니까?"

"나는 저승 염라왕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멀고 먼 길을 가는데 점심이나 나누어 먹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서 걸랑 그럽소서."

할마님도 정심(點心)을 내여놓고 강님이도 정심을 내여노안 강님이가 떡정심 ᄒᆞᆫ 착을 끈차 먹으멍 말을 ᄒᆞ뒈,

"할마님, 어떤 일로 나 정심광 할마님 정심이 ᄒᆞᆫ 손메 ᄒᆞᆫ 맛이 뒈옵네까?"

할마님이 성식을 내멍,

"이 놈아, 저 놈아, 나를 모르겠느냐? 너 ᄒᆞ는 일은 괘씸ᄒᆞ나 너의 큰부인 ᄒᆞ는 지국정성(至極精誠)이 기특(奇特)허연 너 저승으로 가는 질[路] 인도ᄒᆞ저 오랐노라. 강님이야, 나는 너의 큰각씨집의 삼덕조왕할망이 뒈여진다.

강님이야, 욜로 요레 가당 보라. 이른ᄋᆞ둡[七十八] 공거 름질이 근당(近當)ᄒᆞ건 이른ᄋᆞ둡 공거름질에 앚아시민 망년간 노인(老人) 하르바님이 너 눈앞의 근당ᄒᆞ건 아까ᄀᆞ찌 인ᄉᆞ(人事)를 드렴시민 알 도레(道理) 이시리라."

그 말 들은 강님이는,

"고맙습네다."

야개를 소곡ᄒᆞ난 할마님이 간간무례 뒈옵데다.

강님이가 할마님 이른 대로 가단보난 이른ᄋᆞ둡[七十八] 공거름질이 근당ᄒᆞ고, 강님이는 어느 거름찔 들어갈 ᄎᆞ렐 몰란 대상통곡(大聲痛哭) 울 때, 하늘광 ᄀᆞᄄᆞᆼᄒᆞᆫ 망년 노인 하르바 님이 강님의 눈앞의 근당ᄒᆞᆫ다. 강님이가 활딱 일어나멍 허붓이 절을 ᄒᆞ난,

"어떤 일로 젊은 도련(道令)이 망녕간 노인에게 절을 ᄒᆞᆸ네까?"

"하르바님 그 말씀 마옵소서. 저의 집의도 망년간 부모초상(父母祖上)이 있습네다."

"어들로 가는 도련(道令)이 뒈옵네까?"

"나는 저승 염내왕(閻羅王) 잽히레 가옵네다."

"어서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할머님도 점심을 내놓고 강림이도 점심을 내놓으니 강림이가 떡 점심 한 쪽을 끊어 먹으면서 말을 하되,

"할머님, 어떤 일로 나의 점심과 할머님 점심이 한 솜씨 한 맛이 됩니까?"

할머님이 화를 내면서,

"이놈아, 저놈아, 나를 모르겠느냐? 네 하는 일은 괘씸하나 너의 큰부인 하는 지극정성이 기특하여 네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려고 왔노라. 강림이야, 나는 너의 큰부인 집의 삼덕조왕할망이 된다.

강림이야, 이리로 이렇게 가다 보아라. 일흔여덟 갈림길이 가까워질 것이니, 일흔여덟 갈림길에 앉아 있으면 늙은 노인 할아버지가 너의 눈앞에 가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아까같이 인사를 드리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다."

그 말 들은 강림이는,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할머님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지요.

강림이가 할머님이 이른 대로 가다 보니 일흔여덟 갈림길이 가까워져, 강림이는 어느 갈림길로 들어갈지 차례를 몰라 대성통곡하며 울 때, 하늘과 가지런하게 늙은 노인 할아버지가 강림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강림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넙죽 절을 하니,

"어떤 일로 젊은 도령이 늙은 노인에게 절을 합니까?"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의 집에도 늙은 부모 조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도령이 됩니까?"

"나는 저승 염라왕을 잡으러 갑니다."

"멀고 먼 질 가는 디 정심(點心)이나 ᄂᆞ누아 먹기 어쩝내까?"

"어서 그리ᄒᆞ옵소서."

강님이도 정심(點心)을 내여놓고 하르바님도 정심을 내여놔 강님이가 떡정심 ᄒᆞᆫ 귀야질 그차 먹으멍 말을 ᄒᆞ뒈,

"어떤 일로 하르바님 정심ᄒᆞ고 나 정심ᄒᆞ고 ᄒᆞᆫ 손메 ᄒᆞᆫ 맛이 뒈옵네까?"

"이 놈아, 저 놈아, 날 몰르겠느냐? 너 ᄒᆞ는 일은 괘씸ᄒᆞ나 너의 큰부인 ᄒᆞ는 지국정성(至極精誠)이 기특허여 너 저승 가는 질 인도ᄒᆞ저 오랐노라. 나는 너의 큰부인 집 일문전(一門前)이 뒈여진다."

그때 내온 법으로 집안에 궂인 일이 시민 문전(門前) 조왕(竈王) 축원(祝願)ᄒᆞ민 집안에 궂인 일이 멘송(免送)뒈는 법이우다.

하르바님이 말을 ᄒᆞ뒈,

"강님이야 이게 이른ᄋᆞ둡 공거름질이우다. 이 질을 다 알아사 저승질을 가는 법이여. 요 질을 ᄒᆞ나썩 세견 알아보라."

"예."

일문전(一門前)이 이른ᄋᆞ둡 공거름질을 ᄎᆞ례ᄎᆞ례 세여갑데다. 이른ᄋᆞ둡 공거름질을 세여 올립네다.

천지혼합시(天地混合時) 들어간 질[路],
천지게벽시(天地開闢時) 들어간 질,
인왕도업시(人皇都邑時) 들어간 질,
천지천왕(天地人皇) 들어간 질,
산(山)베포 들어간 질,
물베포 들어간 질,
원(員)베포 들어간 질,
신(臣)베포 들어간 질,
왕(王)베포 들어간 질,

"멀고 먼 길 가는데 점심이나 나누어 먹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강림이도 점심을 내놓고 할아버지도 점심을 내놓아, 강림이가 떡점심 한 귀퉁이를 끊어 먹으면 서말을 하되,

"어떤 일로 할아버지 점심하고 제 점심하고 한 솜씨 한 맛이 됩니까?"

"이놈아, 저놈아, 나를 모르겠느냐? 네 하는 일은 괘씸하나 너의 큰부인 하는 지극정성이 기특하여 네의 저승가는 길을 인도하려고 왔다. 나는 너의 큰부인 집 일문전이 된다."

그때 낸 법으로 집안에 궂은 일이 있을 때, 문전과 조왕께 축원하면 집안에 궂은 일이 떠나가게 되는 법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하되,

"강림이야 이게 일흔 여덟 갈림길이다. 이 길을 다 알아야 저승길을 가는 법이다. 이 길을 하나씩 세어서 알아보아라."

"예."

일문전이 일흔여덟 갈림길을 차례차례 세어갑디다. 일흔여덟 갈림길을 세어 올립니다.

천지가 섞일 때 들어간 길,
천지가 개벽할 때 들어간 길,
황제가 도읍할 때 들어간 길,
하늘과 땅과 사람의 황제가 들어간 길,
산이 베풀어 들어간 길,
물이 베풀어 들어간 길,
원님이 베풀어 들어간 길,
신하 베풀어 들어간 길,
임금이 베풀어 들어간 길,

국(國)베포 들어간 질,	나라 베풀어 들어간 길,
제청(祭廳) 도업시(都邑時) 들어간 질,	장례 치르기 위해 들어간 길,
올라 산신대왕(山神大王) 들어간 질,	산에 오른 산신대왕이 들어간 길,
산신벡관(山神百官) 들어 간 질,	산신 백관이 들어간 길,
대서용궁(大五龍宮) 들어간 질,	다섯 용궁으로 들어간 길,
서산대서(西山大師) 들어간 질,	서산대사가 들어간 길,
ᄉᆞ명당(泗溟堂)도 들어간 질,	사명당도 들어간 길,
육한대서(六觀大師) 들어간 질,	육관대사가 들어간 길,
인간불도(人間佛道) 할마님 들어간 질,	인간 불도 할마님이 들어간 길,
혼납천ᄌᆞ(混合天子) 들어간 질,	마마신이 들어간 길,
날궁전[日宮前] 들어간 질,	해 궁전으로 들어간 길,
ᄃᆞᆯ궁전[月宮前] 들어간 질,	달 궁전으로 들어간 길,
월궁전(月宮前)들어간 질,	달 궁전으로 들어간 길,
일궁전(日宮前) 들어간 질,	해 궁전으로 들어간 길,
삼대상공(三大相公) 들어간 질,	삼정승이 들어간 길,
전저석궁(天帝釋宮) 들어간 질,	하느님과 석가모니가 들어간 길,
시님 초공(梢工) 들어간 질,	스님과 뱃사공이 들어간 길,
이공서천(二宮西天) 들어간 질,	내궁과 외궁과 서쪽 하늘로 들어간 길,
삼공(三宮) 주년국(注輦國) 들어간 질,	황제, 태후, 황후가 인도 주련국으로 들어간 길,
원앙감서(願往監司) 들어간 질,	극락세계 감사가 들어간 길,
원앙도ᄉᆞ(元王都事) 들어간 질,	극락세게 도사가 들어간 길,
시왕감서(十王監司) 들어간 질,	시왕 감사가 들어간 길,
시왕도ᄉᆞ(十王都事) 들어간 질,	시왕 도사가 들어간 길,
진벵서(鎭兵使) 들어간 질,	진영의 병마절도사가 들어간 길,
원벵서(員兵使) 들어간 질,	원님과 병마절도사가 들어간 길,
전일월 전벵서(前日月前兵使) 들어간 질,	옛날 해와 달과 옛 병마절도사가 들어간 길,
신일월 신벵서(新日月新兵使) 들어간 질,	새 해와 달과 새 병마절도사가 들어간 길,
짐추염나태산왕(金緻閻羅泰山王) 들어간 질,	김치 수령이 염라대왕에게 들어간 길,
버믈지어 ᄉᆞ천왕(四天王) 들어간 질,	뒤섞이어 사천왕이 들어간 길,
제초일(第初一)에 진강왕(秦廣王) 들어간 질,	첫 번째로 시왕 진광왕 들어간 길,
이제(第二) 초강왕(初江王) 들어간 질,	두 번째로 시왕 초강왕 들어간 길,
제삼 송제왕(第三宋製王) 들어간 질,	세 번째로 시왕 송제왕이 들어간 길,
제닛 오간왕[第四伍官王] 들어간 질,	네 번째로 시왕 오관왕이 들어간 길,
제오 염나왕(第五閻羅王) 들어간 질,	다섯 번째로 시왕 염라왕이 들어간 길,

제육 번성왕(變成王) 들어간 질,
제칠 태산왕(泰山王) 들어간 질,
제팔 평등왕(平等王) 들어간 질,
제구 도시왕(都市王) 들어간 질,
제십 십전왕(十轉王) 들어간 질,
십일 지장왕(十一地藏王) 들어간 질,
십이 셍불왕(生佛王) 들어간 질,
십삼 좌두왕(左頭王) 들어간 질,
십ᄉᆞ 우두왕 (右頭王) 들어간 질,
십오 동ᄌᆞ판관(童子判官) 들어간 질,
십육ᄉᆞ제(十六使者) 들어간 질,
천왕처ᄉᆞ월축ᄉᆞ제(天皇差使月直使者) 들어간 질,
지왕처ᄉᆞ 일죽ᄉᆞ제(地皇差使日直使者) 들어간 질,
인왕처ᄉᆞ 어금베도서나장(一義禁府都事羅將) 들어간 질,
옥황금부도서(玉皇禁府都事) 들어간 질,
저승 이원ᄉᆞ제(使者) 들어간 질,
물로 요왕국(龍王國) 대방황수 들어간 질,
ᄃᆞ물[淡水] 용궁체ᄉᆞ(龍宮差使) 들어간 질,
낭[木]게 절량체ᄉᆞ(結項差使) 들어간 질,
물에 엄ᄉᆞ체ᄉᆞ(渰死差使) 들어 간 질,
대로겍ᄉᆞ체ᄉᆞ(大路客死差使) 들어간 질,
부명체ᄉᆞ(非命差使) 들어간 질,
노불업 노체ᄉᆞ 들어간 질,
멩도멩감 삼체ᄉᆞ(冥道冥官三差使) 들어간 질,
화덕체ᄉᆞ(火德差使) 들어간 질,
싱금체ᄉᆞ 들어간 질,
발금체ᄉᆞ 들어간 질,
모람체ᄉᆞ 들어간 질,
적처ᄉᆞ(赤差使) 들어간 질,
이승 강님(姜林)이 들어간 질,
족고두고 게염지 웬뿔[左角] ᄒᆞᆫ 착만이 질[路]이 낫구나.

여섯 번째로 변성왕이 들어간 길,
일곱 번째로 태산왕이 들어간 길,
여덟 번째로 평등왕이 들어간 길,
아홉 번째로 도시왕이 들어간 길,
열 번째로 전륜왕이 들어간 길,
열한 번째로 지장왕이 들어간 길,
열두 번째로 생불왕이 들어간 길,
열세 번째로 좌두왕이 들어간 길,
열네 번째로 우두왕이 들어간 길,
열다번째로 동자 판관이 들어간 길,
열여섯 사자가 들어간 길,
천황차사 월직사자가 들어간 길,
지황차사 일직사자가 들어간 길,
인황차사 의금부도사나장이 들어간 길,
옥황상제 금부도사가 들어간 길,
저승 이원사자가 들어간 길,
물로 용왕국 대방황수 들어간 길,
단물 용궁차사 들어간 길,
나무에 목매 죽은 이가 들어간 길,
물에 빠져죽은 이가 들어간 길,
큰길에서 객사한 이가 들어간 길,
제명에 죽지 못한 이가 들어간 길,
어린 아기를 잡아가는 차사가 들어간 길,
저승으로 가는 세 차사가 들어간 길,
불을 맡은 신령이 들어간 길,
신금차사 들어간 길,
발금차사 들어간 길,
모람차사[1] 들어간 길,
적차사 들어간 길,
이승 강림이 들어간 길,
아주 작은 개미 왼뿔 한조각만큼 길이 났구나.

1) 신금차사, 발금차사, 모람차사는 미상

"강님이야, 어주리비주리 눈부약 한탈남 가시덤불 돌바쿠 능거등 질을 허우틀어 가당 보민 저승 질 토래비 질나장(路羅將) 숙석(熟石)으로 드릴 노아 석자두티[三尺厚] 대잣 넙이[五尺廣] 질[路]을 다끄당 시장끼에 몰령 헤남석 앗앙 졸암실거메 너의 가진 전댓(戰帶) 귀예 떡 정심(點心)을 앗아내영 질토래비 눈앞의 노민 익은 음식(飮食)이라 베[腹]고픈 짐에 삼싀번[三番]을 그차 먹을거여. 기영허염시민 알 도레(道理)이시리라."

"어서 그리 ᄒᆞ옵소서."

강님이 머리 소꼭ᄒᆞ난 간간무례 퉤옵데다.

"강림이야, 울퉁불퉁하고 산딸기나무 가시덤불에 풍설이 덮인 돌무더기 험한 길을 헤쳐 가다 보면, 저승길을 고치는 길나장[1)]이가 숙석[2)]으로 다리를 놓아 석 자 두께 다섯 자 넓이의 길을 닦다가, 시장기에 몰려서 양지바른 곳에 앉아 졸고 있을 테니, 네가 가진 전대 안의 떡을 꺼내어 길보수꾼 눈앞에 놓으면, 익은 음식이라 배고픈 김에 세 번을 끊어 먹을 것이다. 그리하고 보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다."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강림이 머리를 숙이니 어딜 갔는지 사라져 버립디다.

---

1) '나장'은 의금부에 속하여 죄인을 매질하는 일과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보던 하급 관리.

2) 인공으로 다듬은 돌.

8. 저승길을 지키던 길보수꾼의 도움으로 저승의 초군문에서 염라왕을 기다려 잡는다

강님이가 정당(靑銅) ᄀ뜬 풀따시예 동곳 ᄀ뜬 풀주먹을 걷어잡아 능거등질을 허우튼어 가단 보니 아닐커라 질토래비 질 나장(羅將)이 질에염에 앚안 소닥소닥 졸암시난. 강님이 전댓귀엣 떡을 내여놘 질토래비 눈 앞데레 노난 질토래비가 시장ᄒᆞᆫ ᄇᆞ름에 떡을 앗안 삼싀번을 그차먹으난 눈이 배롱허여 산도 넘고저라. 물도 넘고저라 ᄒᆞᆫ다. 뒤테레 바레 여보니 무섭고 석거운 관장(官長)이 사아시난, 질토래비 와들랑이 일어사멍,

"어딧관장이 뒈옵네까?"

강님이가 말을 ᄒᆞ뒈,

"나는 이승 짐치(金緻) 원님에 몸받은 강님이 강파도가 뒙네다."

"팔ᄌᆞ(八字) 궂인 동간(同官)은 유학성제(幼學兄弟)로고나. 이승 동간님아, 어딜 가는 질입네까?"

"나는 저승 염내왕(閻羅王) 잡히레 가옵네다."

"아이고, 이승 동간님아, 이게 무슨 말이우까? 저승을 어떵 갈 수 이십네까? 검은 머리가 벡발(白髮)이 뒈도록 걸어봅서. 저승을 가지느냐. 못 가는 법입네다."

이 말을 들은 강님인,

"저승 동간(同官)님아, 나의 갈 질 저승 질을 인도(引導)나 시겨줍서."

에원(哀願)ᄒᆞ난 이원ᄉᆞ제가 생각허여보니 놈의 음식 공이 먹엉 목 걸리는 법이라.

"이승 동간님아, 저의 저승질 인도대로 저승을 가아봅서. ᄄᆞᆷ적삼 있습네까?"

강림이가 청동 같은 팔뚝에 송곳 같은 주먹을 걷어잡아 험한 길을 헤쳐 가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길보수꾼 길나장이 길옆에 앉아서 힘없이 소닥소닥 졸고 있습디다.

강림이가 전대 안의 떡을 내어놓아 길보수꾼 눈앞에 놓으니, 길 보수꾼이 시장한 바람에 떡을 가져 세 번을 끊어 먹으니 눈에 생기가 들 듯하여 힘이 솟아나 산도 넘고 물도 넘을 듯합니다. 뒤를 바라보니 무섭고 건장한 관장이 서 있으니, 길보수꾼이 벌떡 일어서면서,

"어디 관장이 됩니까?"

강림이가 말을 하되,

"나는 이승 김치 원님에 소속된 강림이 강파도가 됩니다."

"팔자 궂은 동관에 어려서 같이 공부한 형제로구나. 이승 동관님아, 어딜 가는 길입니까?"

"나는 저승 염라왕을 잡으러 갑니다."

"아이고, 이승 동관님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승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걸어보십시오. 저승을 갈 수 있는지. 못 가는 법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강림이는,

"저승 동관님아, 나의 갈 길인 저승길을 인도나 시켜주십시오."

애원하니, 이원사자[1]가 생각하여 보니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어서는 목에 걸리는 법이라.

"이승 동관님아, 저의 저승길 인도대로 저승을 가 보십시오. 땀받이적삼이 있습니까?"

1) 저승의 사자(使者) 이름.

"예, 있습네다."

"삼혼(三魂)을 불러드리건 혼정(魂情)으로나 저승 초군문(初軍門)을 가아봅서. 모릿날 ᄉᆞ오시(巳午時)민 염내왕이 알엣녁의 말잿ᄌᆞ부 장제칩[長者家]의 웨뚤[獨女]애기 신벵(身病) 들언 전세남을 받으레 ᄂᆞ려살거난 초군문에 적베지(赤牌旨) 부쪘당 ᄒᆞᆫ 두번 ᄉᆡ번[三番] ᄂᆡ번[四番] 다섯번 가메(駕馬)가 당ᄒᆞ건 염내왕(閻羅王)이 탄 가메메 염내왕을 잽혀 보옵소서.

저승 초군문(初軍門) 가기 전(前)의 헹기못이 당ᄒᆞ거든 헹기못 바위[邊]에 보민, 인간에서 지멩(命)에 못 가 놈의 멩(命)에 가던 사름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오랑 비새ᄀᆞ찌 울엄실거우다.

동간(同官)님이 헹기못 바위 당ᄒᆞ민, '날도 ᄃᆞ랑 겹서. 날도 ᄃᆞ랑 겹서.' 동간님 쾌짓(快子) 숩을 심을 거난 그제랑 전댓귀엣 떡을 즘지롱이 ᄇᆞ수왕 동서(東西)레레 삐고 보민 저승 초군문에 부떠질 거우다. 동간(同官)님아 저승 본짱이나 가집데가?"

"아이고 못내 가졌수다."

"이게 무신 말입네까? 저승 본메가 엇이민 저승을 가아도 돌아올 수 엇입네다."

강님이가 손바닥을 두드리멍,

"나 일이로고나!"

ᄀᆞ만서 생각허여 보난,

"큰부인 이별허여 나올 때, 저승 초군문 가기 전(前)의 급ᄒᆞᆫ 대목 내ᄃᆞᆮ건 허리에 체운 물멩지 전대(明紬戰帶) 삼ᄉᆡ번 털뜨리민 알 도레(道理) 있오리다 허연게 이것도 급ᄒᆞᆫ 대목이로고나."

전대 허리띠 삼ᄉᆡ번 털뜨련보난 동심절(同心結) ᄌᆞ천문 ᄌᆞ운문 다르륵기 털어지난,

"예, 있습니다."

"삼혼[1]을 불러들이거든 혼령으로나 저승 초군문을 가 보소. 모레 사시 오시면 염라왕이 아래쪽 마지막집 부자의 외동딸아기가 신병이 들어서 전세남굿[2]을 받으러 내려설 것이니, 초군문에 적패지를 붙였다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가마가 도달하면 염라왕이 탄 가마이니 염라왕을 잡아 보소.

저승 초군문에 가기 전에 헹기못에 도달하거든 헹기못 가에 보면, 인간에서 제 명에 못 죽어 남의 명에 죽은 사람들이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와서 슬픈 새같이 울고 있을 것이외다.

동관님이 헹기못 가에 다다르면,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하며 동관님 쾌자 섶을 잡을 것이니, 그때는 전대 안의 떡을 자잘하게 부수어서 동서로 뿌리고 보면 저승 초군문에 붙어질 것이외다. 동관님아, 저승 증표나 갖고 있습니까?"

"아이고, 못 가졌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승 증표가 없으면 저승을 가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강림이가 손뼉을 치면서,

"내 일이로구나!"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큰부인 이별하여 나올 때, 저승 초군문에 가기 전에 급한 대목을 당하거든 '허리에 채워준 명주 전대를 세 번 털면 알 도리가 있으리다.' 하던데, 이것도 급한 대목이로구나."

하여 전대 허리띠를 세 번 털어 보니 동심결[3] 불삽[4] 운삽[5]이 다르륵하게 떨어집니다.

1) 사람의 몸 가운데 있다는 세 가지 정혼(精魂)
2) 병자가 죽기 전에 살려주기를 비는 굿 이름.
3) 풀리지 않는 매듭.
4) 발인할 때 상여의 앞뒤에 들고 가는 제구.
5) 발인할 때에, 영구(靈柩)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널판.

이원ᄉᆞ제가,

"이게 저승 본멥네다."

그때 내운 법으로 우리 인간 사름도 죽으민 동심절(同心結) ᄌᆞ천문 ᄌᆞ운문헤야 쿰지는 법입네다.

저승 이원ᄉᆞ제 강님의 ᄄᆞᆷ적삼을 벳견,

"강님이 보오, 강님이 보오."

삼혼(三魂)을 불렀더니, 강님의 사암혼(三魂)은 저승 포도리청 호안성 지나가 헹기못을 가안 보난, 헹기못 바위[邊]에 앚인 사름,

"오라바님 날 ᄃᆞ랑 거릅서."

"성님(兄—)날 ᄃᆞ랑 겹서."

"조캐[姪], 동승(同生)아, 날도 ᄃᆞ랑 글라. 날도 ᄃᆞ랑 글라."

관디(冠帶) 습을 볼끈 심어가난, 강님이 전댓귀예 떡을 놓았단 줌지롱이 그차네 동서(東西) 레레 허끄니 저승 못간 사름덜 베고픈 지망에 떡을 줏어먹저 관딧습 내여분다. 강님이 눈 질끈 ᄀᆞᆷ아아전 헹기못데레 빠지고 보니 저승 연주문(延秋門)에 부떠지옵데다.

적베지(赤牌紙)는 연주문(延秋門) 바위[邊]에 부쪄두고 연주문 지동[柱] 밑에 망근(網巾) 벗언 머리예 비고 누었더니, 모릿날 ᄉᆞ오시(巳午時)옌 연주문 안에서 천하(天下)가 요동(搖動)ᄒᆞ는 듯 허연 발딱 일어나 보난 앞읜 영끼(令旗) 뒤옌 몸끼 파랑당똘영끼 삼만관숙(三班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와라치라' 연주문 뱃기 나오는 걸 보난

초펀(初番) 가메 지나가고 두 싀번 [二三番] 가메 넘어가고 늿챗 가메가 넘어가더니 다섯번챗 가메가 줌칫 사멍 호령을 지르뒈,

이원사자가,

"이게 저승 증표입니다."

그때 낸 법으로 우리 인간 사람도 죽으면 동심결 불삽 운삽을 하여 품기는 법입니다.

저승 이원사자가 강림의 땀받이적삼을 벗겨서,

"강림이 보오[1], 강림이 보오."

삼혼을 불렀더니, 강림의 삼혼은 저승 포도청 호안성[2]을 지나가 헹기못 가에 가 보니, 헹기못 가에 앉은 사람들이,

"오라버님 날 데리고 가십시오."

"형님 날 데리고 가십시오."

"조카, 동생아, 나도 데리고 가거라. 나도 데리고 가거라."

관대 섶을 불끈 잡아가니, 강림이 전대 안의 떡을 꺼내어 자잘하게 끊어서 동서로 흩뿌리니 저승 못 간 사람들이 배고픈 김에 떡을 주어 먹으려고 관댓섶을 놓아버립니다. 강림이는 눈을 질끈 감아서 헹기못으로 빠지고 보니 저승 연추문[3]에 붙어집디다.

적패지는 연추문 언저리에 붙여두고, 연추문 기둥 밑에 망건을 벗어 머리에 베고 누웠더니, 모레 사오시에 연추문 안에서 천하가 요동하는 듯하여 벌떡 일어나 보니, 앞에는 영기, 뒤에는 몸기[4], 파랑당똘영기, 삼반관속 육방하인이 물렀거라 하면서 연추문 밖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가마가 지나가고, 두세 번째 가마가 넘어가고, 네 번째 가마가 넘어가더니, 다섯 번째 가마가 멈칫 서면서 호령을 지르되,

1) 사람이 죽은 때 혼 부르는 소리.
2) 저승 가는 길에 있는 성(城).
3) 경복궁(景福宮)의 서쪽에 있던 문의 이름.
4) 고관의 행차 때 드는 깃발들.

"지동토인(妓童通引)아, 어서 저디 보라. 연주문(延秋門)에 부찐 적베지(赤牌紙)가 어떤 적베지냐?"

이원ᄉᆞ제 말ᄒᆞ뒈,

"이승 강님(姜林)이가 저승 염내왕(閻羅王) 잽히레 온 적베집네다."

염내왕이 호령을 지르뒈,

"어떤 놈이 나를 잽히겠느냐?"

강님이 ᄒᆞᆫ 좀은 허였던 몸천[身體]을 봉에눈[鳳眼]을 부릅뜨고 상각쉴(三角鬚) 거시리고 정당[靑銅] ᄀᆞ뜬 폴따실 걷어 동곳 ᄀᆞ뜬 폴주먹을 내여놓고 우레ᄀᆞ뜬 소리 벵낙(霹靂)ᄀᆞ찌 지르멍 ᄒᆞᆫ번을 벌짝 튀멍 메여치니 삼만관숙(三萬官屬)이 간간무례, 싀번챈 연가멧 부출을 심언 흥글멍 가멧문을 ᄋᆞᆯ안 보난 염내왕(閻羅王)도 양주먹 쉐여 앚안 박박 털엄시난,

염내왕 손에 눈ᄁᆞᆷ박ᄒᆞ는 새[illegible]손엔 [illegible]발엔 박쒜[足鎖] 용도머리 헹착뱃[illegible]을 잡아 블르니, 염내왕도,

"강님이야, 강님이야, ᄒᆞᆫ배코만 누[illegible] 인정 ᄉᆞ정(人情事情) 많이 걸어 주마."

염내대왕 인정 ᄉᆞ정 많이 받아 ᄒᆞᆫ 배콜 누기니, 그 때에 내운 법으로 우리 인간 사름도 죽엉 가민 이 체ᄉᆞ(差使)가 앞을 사고 이 배로 절박(結縛) 상송(上送)ᄒᆞ는 법입네다.

"이간주당[此家內住堂] ᄌᆞ손에 인정 ᄉᆞ정 많이 받앙 체ᄉᆞ님에 우올리건 이 간주당(家內住堂) 영혼 혼벡(靈魂魂魄)도 이 배 절박(結縛) 상송(上送)텔 일을 풀어줍서."

"통인[1]아, 어서 저기를 보아라. 연추문에 붙인 적패지가 어떤 적패지냐?"

이원사자가 말을 하되,

"이승 강림이가 저승 염라왕을 잡으러 온 적패지입니다."

염라왕이 호령을 지르되,

"어떤 놈이 나를 잡겠느냐?"

강림의 한 줌은 하였던 육신은 봉황눈을 부릅뜨니, 삼각수를 거스르고 청동같은 팔뚝을 걷어 동곳[2] 같은 팔주먹을 내놓고, 우레 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한 번을 펄쩍 뛰어 메어치니 삼반관속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 번을 메어치니 육방하인이 사라지고, 세 번째는 가마 채를 잡아 흔들면서 가마 문을 열어 보니 염라왕도 두 주먹을 쥐고 앉아 발발 떨고 있습니다.

염라왕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손에는 오랏줄, 발에는 족쇄, 용도머리, 행차 밧줄로 결박하여, 한번에 잡아 묶으니 염라왕도,

"강님이야, 강님이야, 밧줄의 한 고[3]만 늦추어 달라. 인정 사정 많이 걸어 주마."

염라대왕의 인정 사정을 많이 받아 한 고를 늦추니, 그때에 낸 법으로 우리 인간 사람도 죽어 가면 이 차사가 앞에 서고 이 밧줄로 결박하여 보내는 법입니다.

"이 집안 자손에 인정 사정 많이 받아 차사님께 올리거든, 이 집안 영혼 혼백도 이 밧줄로 결박하여 보낼 일을 풀어주십시오."

1) 관아의 관장 밑에 딸려 잔심부름을 하던 이속.
2) 상투를 튼 뒤에 풀어지지 않게 꽂는 물건.
3) 옷고름·노끈 따위의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한 가닥을 고리처럼 맨 것.

9. 강림이 전새남을 받아먹고, 염라왕이 이승으로 올 것을 약속 받고 이승으로 돌아온다

그때예 염내왕이 말ᄒᆞ뒈,

"강님이야 성식을 내지 말앙 나ᄒᆞ곡 ᄀᆞ찌 알엣 말젯장제칩의 전새남 받아 먹엉 인간 가기 어쩔러냐?"

"어서 걸랑 그리 ᄒᆞᆸ서."

ᄌᆞ부장제칩 먼 올레예 가고 보니 신의성방[神房]이 홍포관디(紅布冠帶) 조심띠예 대시왕 (大十王) 연맞이 오리정(五里亭) 신청궬 ᄒᆞᆫ단 모든 신주(神主)는 다 살려옵서 ᄒᆞ고 강님이는 살려옵서 아녀니

신의성방(神房)을 ᄉᆞ문(四身) 절박허연 제석공 신짜리[帝釋宮神席]예 ᄑᆞ릿ᄑᆞ릿 죽여가니, 똑똑ᄒᆞ고 역력ᄒᆞᆫ 연당(靈筵) 알 제석궁 신소미(神小巫)는 오리정 데령상(待令床)을 내여놓안,

"산이 체ᄉᆞ(差使)도 체ᄉᆞᆸ네다. 우리 인간 강님체ᄉᆞ도 저승을 가아네 염내왕광 ᄀᆞ찌 신수 퍼사는 듯ᄒᆞ우다. 강님체ᄉᆞ도 살려옵서."

그때에 염라왕이 말을 하되,

"강림이야, 화를 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아랫쪽 마지막으로 부잣집의 전새남굿을 받아 먹고 인간 세상에 가는 것이 어떠냐?"

"어서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셋째 부잣집 먼 올레에 가 보니, 심방[1]이 홍포관대에다 조심띠[2]를 띠고, 시왕맞이[3] 오리정[4]에서 신청궤[5]를 하다가, '모든 신주[6]는 다 살리러 오소서.'[7] 하는데, 강림이는 '살리러 오소서.' 아니합디다.

심방이 사신[8]이 결박하니, 제석궁 신자리[9]에서 파릿파릿 죽어가니, 똑똑하고 역력한 굿 마당 아래에 있던 제석궁 신소무[10]가 오리정 대령상[11]을 내어 놓고,

"살아있는 차사도 차사입니다. 우리 인간 강림차사도 저승을 가서 염라왕과 같이 내려오는 듯합니다. 강림차사도 오소서."

---

1) 제주에서 무당을 통칭하는 말.
2) 관디를 입고 허리를 두르는 띠.
3) 시왕을 맞아들여 기원하는 굿.
4) 본래는 손님을 맞이할 때나 배웅할 때 환영과 이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 관아의 오리(五里) 밖에 세워둔 정자인데, 여기에서는 굿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듯함.
5) 귀신을 청해 맞아들이는 제사의 절차.
6) 본래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신'을 뜻하는 듯함.
7) 신을 청해 부르는 사설.
8) 중생을 교화하려는 부처님이 중생과 같은 몸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여기에서는 병들어 죽게 된 부잣집 딸을 가리킴.
9) 심방이 서서 굿을 하는 제사상 앞에 깔아놓은 돗자리.
10) 제일 어린 무당.
11) 제사 때 신을 청해 들이는 데 쓰는 젯상.

죽어가던 신의 성방(神房)[1] ᄑ릿ᄑ릿 살아나고.

그때예 내온 법으로 시왕당클 알에 ᄉ젯상(使者床)을 싱거 나깟방석 나깟도전을 치어 올리는 법입네다.

강님이가 ᄒ두잔 술을 권ᄒ는 게 술이 만족(滿足)허여져 ᄉ젯상(使者床) 알[下]에 쓸어젼 줌을 자단 보난 염내왕(閻羅王)이 간간무례뒈옵데다.

강님이가 비새ᄀ찌 울멍 머언 올레예 나산보난 조왕할마님이 손을 친다. 강님이가 먼 문 뱃기[外] 나사난 조왕할마님이 말을 ᄒ뒈,

"강님이야, 염내왕은 새몸[鳥身]에 환셍(還生)허연 큰대 고고리예 앚아시메 대톱으로 큰대를 싸암시민 알 도리(道理) 이시리라."

강님이 둘려들언 큰대를 싸[illegible] ᄒ난 염내왕이 강님의 홀목을 심으멍

"강님의 눈은 쒜길 수 엇구나. 강님이 이 대시왕연맞이가 도올라사게 뒈염시니 어서 인간(人間) 가시민 모릿날 ᄉ오시(巳午時)민 동헌(東軒)마당으로 ᄂ려살로라."

"그러거든 어인타인(御印打印)을 마쳐 줍서."

강님이 뚬적삼에 저승 글 삼제(三字)를 씨어주니 강님이가 하는 말이,

"염내대왕님아, 올 땐 나 ᄆ슴[心]대로 와시나 갈 때예는 나 ᄆ슴대로 갈 수 읏이메 저승 질[路]을 인도시겨 주옵소서."

염내대왕이 벡강셍이[白狗] ᄒ나를 내여주고 돌레떡 싓[三]을 강님의 어께예 체와 주멍,

1) 문맥상 '사신'이 맞는 듯함.

하니 죽어가던 사신이 파릇파릇 살아납디다.

그때에 낸 법으로 시왕제사상[2] 아래 사자제사상을 따로 차려 큰시루 떡[3]을 쪄 올리고 춤을 추며 제사를 지내는 법입니다.

강림이가 한두 잔 술을 권하는 김에 술이 만족하여 사자제사상 아래 쓰러져 잠을 자다 보니 염라왕이 사라져버렸습디다.

강림이가 슬프게 울면서 먼 올레에 나서 보니 조왕할머님이 손을 치네요. 강림이가 먼 문밖에 나서니 조왕할머님이 말을 하되,

"강림이야, 염라왕은 새 몸으로 환생하여 큰대[4]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 대톱으로 큰대를 자르고 있으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

강림이 달려들어 큰 대를 자르려 하니, 염라왕이 강림의 손목을 잡으면서,

"강림이 눈은 속일 수 없구나. 강림이야, 시왕맞이가 끝나게 되었으니, 어서 인간 세상에 가 있어라. 모레 사오시가 되면 동헌 마당으로 내려서[illegible]."

"그러면 증거로 염라왕의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강림의 땀받이적삼에 저승 글 석 자를 써 주니, 강림이가 하는 말이,

"염라대왕님아, 올 때는 내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에는 나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 저승 길을 인도시켜 주소서."

염라대왕이 흰 강아지 하나를 내어 주고 도래떡[5] 셋을 강림의 어깨에 채워 주면서,

2) 큰굿 때의 올리는 네 제사상 중에 시왕께 올리는 제사상.
3) 시왕맞이 굿을 할 때 사자상(使者床)에 통째로 올리는 시루떡. 강림 차사가 이 시루떡 위에 하강하여 앉는다고 함.
4) 큰 굿할 때 마당에 깃발을 달아 높이 세우는 대.
5) 쌀가루를 둥글고 납작하게 만든 떡.

“이 떡 ᄒᆞᆫ꼼썩 그창 벡강셍일 달래멍 이 강셍이 가는 뒬 ᄯᆞᆯ롸감시민 알 도레 이시리라.”

ᄌᆞᆨ갱이 ᄏᆞᆷ엣 떡 ᄁᆞ치멍 강셍일 달래멍 뒤ᄯᆞ라 가단 보난 헹기못이 근당ᄒᆞ니, 벡강셍이가 ᄃᆞᆯ려들언 강님의 모가질 물언 헹기못데레 팡당 빠지는 것이, 셍사름[生人] ᄌᆞᆷ자당 꿈보당 께듯이 강님이 눈을 번뜩 뜨언 보난 이승 질이 뒈옵데다.

그때예 내온 법으로 인간 사름 죽으민 떡허영 ᄌᆞᆨ갱이에 ᄏᆞᆷ지는 법입네다.

벡강셍이[白狗] 강님의 목거릴 물어난 때문에 예ᄌᆞ(女子)는 엇어지나 남ᄌᆞ(男子)는 목골에 꽝[骨]이 튀여나는 법입네다.

강님이 이승을 오고 보니 어느 ᄆᆞ슬[里] 지경(地境)도 몰라지고 북방(北方)을 바레여보니 인간처(人間處) 불빗이 비추와 강님이 불빗을 종가 ᄎᆞ아가는 것이 강님의 큰 부인 집이 뒈옵데다. 강님의 큰부인은 강님이 저승 가 삼년상(三年喪) 쳇시께가 돌아오난 걸명을 ᄒᆞ레 먼문[遠門] 뱃기 나와네,

“설운 낭군님 살았건 ᄒᆞ루 바삐 돌아오곡 죽었건 기일 제ᄉᆞ(忌日祭祀) 많이 받앙 가옵소서.”

먼문 ᄌᆞᆼ가 들어가니 강님이 들어사멍,

“질 넘어가는 사름 주인(主人)이나 멎어줍서.”

강님의 큰부인 데답ᄒᆞ뒈,

“오ᄂᆞᆯ 밤은 우리 집의 주인을 멎일 수 엇수다.”

“어떤 일이 뒈옵네까?”

“우리 집의 낭군님이 강님이가 뒈여지는디, 저승 가 삼년상 쳇시께(祭祀)가 뒈여집네다.”

“이 떡을 조금씩 끊어 흰 강아지를 달래면서 이 강아지가 가는 뒤를 따라가고 있으면, 알 도리 가 있으리라.”

겨드랑이 품에 떡을 끊으면서 강아지를 달래며 뒤따라가다 보니 헹기못에 가까이 옵디다. 흰 강아지가 달려들어 강림의 목 앞부분을 물고 헹기못으로 풍덩 빠지니, 생사람이 잠자다가 꿈을 깨듯이 강림이 눈을 번뜩 떠보니 이승 길이 됩디다.

그때에 낸 법으로 인간 사람이 죽으면 떡을 겨드랑이에 품게 되는 법입니다.

흰 강아지가 강림의 목 앞부분을 물었던 때문에 여자는 없지만 남자는 후두에 뼈가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강림이 이승에 오고 보니, 어느 마을 지경인지도 모르고 북쪽을 바라보니 인간이 사는 듯한 불빛이 비치고 있어, 강림이 불빛을 따라 찾아가는 것이 강림의 큰부인 집입디다.

강림의 큰부인은 강림이 저승에 가 삼년상 지나 첫 제사가 돌아오니 걸명[1)]을 하러 먼 문밖에 나와서,

“설운 낭군님 살았으면 하루바삐 돌아오고, 죽었거든 기일 제사를 많이 받아 가십시오.”

하며 먼 문 잠그고 들어가니, 강림이 들어서면서,

“길 넘어가는 사람인데 하룻밤 유숙하게 해주오.”

강림의 큰부인이 대답하되,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집 낭군님이 강림인데, 오늘이 저승 가 삼년상이 끝나고 첫 제사가 됩니다.”

1) 제사 끝낸 뒤에 제상의 각 제물을 조금씩 떠다 ‘올레’에 던져 잡신(雜神)을 사귀는 일.

"내가 강님이 퉤여진다."

"내가 강림이가 되오."

"우리 낭군님 강님이가 살아올 톡이 읏수다. 뒤칩의 짐서방(金書房)이건 늴 아척[明日朝] 오민 시께테물 하영 드리리다."

"우리 낭군님 강림이가 살아올 턱이 없습니다. 뒷집의 김서방이면 내일 아침 오면 제사 음식이라도 많이 드리리다."

"아니 내가 강님이가 퉤여진다."

"아니 내가 강림이가 되오."

"경ᄒᆞ건 먼 문 궁기로 관딧 솝 ᄒᆞᆫ 착을 내여놉서. 알 도레 있오리다."

"그러면 먼 문 구멍으로 관디 섶 한쪽을 내놓으소서. 알 도리가 있으리다."

관딧 솝 ᄒᆞᆫ 착을 문 궁기로 내여노난 본매본짱으로 저승갈 때 귀 엇인 바농 ᄒᆞᆫ 쏨 꼽은 게 삭아 오도독 부러집데다.

관디 섶 한쪽을 문 구멍으로 내미니 증표로 저승 갈 때 키 없는 바늘 한 쌈을 꽂은 것이 삭아 오도독 부러집디다.

"설운 낭군님이 적실ᄒᆞ구나."

"설운 낭군님이 틀림없구나."

먼 문을 올안 양손[兩手] 잡아 남인(男人)님 ᄃᆞ려 침방(寢房)으로 들어가니, 강님이가,

먼 문을 열어 두 손을 잡아 남편님을 데려서 침방으로 들어가니, 강림이가,

"이건 어떤 일이냐?"

"이건 어떤 일이냐?"

"설운 남인님 저승 가 삼년상(三年喪) 첫 시께[祭祀]가 뒙네다."

"설운 남편님 저승에 가 삼년상을 지내고 첫 제사입니다."

"나는 저승 가 사흘을 살았는디 이승은 삼년(三年)이 퉤였고나."

"나는 저승에 가서 사흘을 살았는데 이승은 삼년이 되었구나."

저승 ᄒᆞ를[一日] 이승 일년법(一年法)입니다.

저승의 하루가 이승의 일 년이 되는 법입니다.

삼년상 첫 시께는 대잔치로 호근 음복(飮福) ᄒᆞ고 강님이가 말을 ᄒᆞ퉤,

삼년상을 지내고 첫 제사는 큰 잔치로 치르고 음복한 후, 강림이가 말을 하되,

"아바님아, 나 엇이난 어떵 셍각나옵데가?"

"아버님아, 나 없으니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설운 아기 엇어지난 ᄆᆞ디ᄆᆞ디 셍각나라."

"설운 아기 없어지니 마디마디 생각이 나더라."

"설운 아바님 죽으민 육항방장대(六項喪杖) ᄋᆞ숫ᄆᆞ작[六節] 왕대방장대 설립(設立)ᄒᆞ곡 왕대 ᄆᆞ작마다 ᄆᆞ디ᄆᆞ디 아바님 셍각ᄒᆞ멍, 아바님은 ᄌᆞ식상엣 ᄆᆞ음 알을 풀어시니 알푼 시무옷 둘러입엉 연삼년(連三年) 중의 헹착 출령 아바님 공(功) 가파 드리리다."

"설운 아버님 돌아가시면 여섯 마디로 된 큰 상대[1]를 만들고, 큰 상대를 마디마디 아버님 생각하리다. 아버님은 자식에 대한 마음으로 밑을 풀었으니 밑을 푼 상복을 둘러 입어 삼 년 동안 아버님 공을 갚아 드리겠나이다."

"어머님은 나 엇이난 어떵 셍각납데가?"

"어머님은 나 없으니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설운 아기 엇어지난 먹먹허여지어라. 저 올레예 건당도 ᄌᆞ직ᄌᆞ직 셍각 나."

"설운 아기 없어지니 먹먹해지더라. 저 올레를 걷다가도 자주자주 생각나더라."

1) 상제(喪制)가 짚는 지팡이.

"어머님은 죽으민 동(東)데레 휘여진 머구낭 가지마다 ᄌᆞ직ᄌᆞ직 셍각허여, 어머님 ᄌᆞ식상엣 ᄆᆞ음 알을 감추와시니 알 감친 시무옷 입엉 어머님 공 가파 드리쿠다."

"설운 성(兄)님덜은 어찌 셍각납데가?"

"설운 성제간(兄弟間) 엇어부난 열두 ᄃᆞᆯ[十二月]ᄁᆞ장 셍각나단 열두 ᄃᆞᆯ이 넘어가난 ᄎᆞᄎᆞ이ᄎᆞ(次次二次) 잊었고나."

성제간은 옷 우읫 ᄇᆞ름이라 열두 ᄃᆞᆯ 소기(小忌)ᄁᆞ지 복쓰기만 서립(設立)ᄒᆞ고.

"먼 궨당(眷堂) ᄇᆞ딘[近] 권당은 어찌 셍각나옵데가?"

"설운 궨당 엇어부난 큰일[大事] 때만 셍각납데다."

궨당은 죽으난 고적법만 서련ᄒᆞ고,

"문 안에 문 뱃겻디 여레ᄃᆞᆸ[十八] 호첩(好妾)덜은 나 엇이난 어찌 셍각나더냐?"

"저 올레예 걷당 뒷고개 ᄒᆞᆫ뽐만 ᄒᆞᆫ 놈 보민 셍각납데다."

"이 년 저 년덜 쓸 곳 엇는 년이로고나."

동서(東西)레레 ᄆᆞᆫ딱 갈림 시겨두고,

"큰부인은 나 엇이난 어찌 셍각나더냐?"

"설운 남인(男人) 엇어부난 초ᄒᆞ를[初一日] 보름 삭망(朔望) 넹겨 놈의 말 들엉 가젠 ᄒᆞᆫ 게 인제정네(情誼) 셍각하는 게 열두 ᄃᆞᆯ 소기(小忌)ᄁᆞ장 앚았수다.

열두 ᄃᆞᆯ 소기 넘언 놈의 말 들엉 가젠 ᄒᆞᆫ 게 정네 셍각허연 쑤물넉 ᄃᆞᆯ[二十四月] 대기(大忌) 앚았수다.

"어머님은 돌아가시면 동으로 뻗은 머귀나무로 만든 상장대를 짚어 먹먹하게 생각하고, 머귀나무 가지마다 자주자주 생각하오리다. 어머님 자식에 대한 마음을 사타구니를 감추어 주셨으니 밑을 감친 상복을 입어 어머님 공을 갚아 드리겠나이다."

"설운 형님들은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설운 형제간 없어지니 열두 달까지 생각나다가 열두 달이 넘어가니 차차 잊어버리더라."

형제간은 옷 위의 바람이라, 열두 달 소상[1]까지만 복을 입도록 하고,

"먼 친족 가까운 친족은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설운 친족 없어지니 큰일 때만 생각이 나더라."

친족은 죽으니 고적[2]을 하는 법이 생겼고,

"문 안 문밖의 열여덟 호첩들은 나 없으니 어떤 생각이 나더냐?"

"저 올레에 걷다가 뒷목이 한 뼘만한 놈이 보이면 생각이 납디다."

"이년 저년들 쓸 곳 없는 년이로구나."

동서로 전부 살림을 갈라 버리고,

"큰부인은 나 없으니 어떤 생각이 나더냐?"

"설운 남편 없어 버리니 초하루 보름 삭망전[3]을 넘겨 개가하라는 남의 말 듣고 가자고 한 것이, 살아온 정의를 생각하다 보니 열두 달 소상까지 그저 앉았나이다.

열두 달 소상 넘어서 남의 말 듣고 개가하려 한 것이, 정의 생각하여 기다리다 보니 스물넉 달 대상[4]까지 앉았습니다.

1) 사람이 죽은 지 일 년 만에 지내는 제사
2) 장사 때 친족끼리 떡을 만들어다 보조하는 법.
3) 상중(喪中)에 있는 집에서,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
4)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대기 넘언 놈의 말 들엉 가젠 ᄒᆞᆫ 게 삼년상(三年喪) 쳇 시껠[初祭祀] 앚고 보난 설운 남인님이 오랐고나."

설운 큰부인은 산 수절(守節) 지켠 앚아시메 열녀법(烈女法) 마련ᄒᆞ고, 인간(人間)에서 예문예 장(禮文禮狀)만 드리민 저승은 오누잇법[男妹法]을 서련ᄒᆸ데다.

대상 넘어 남의 말 듣고 개가하려 했는데, 삼년상 첫제사까지 앉고 보니 설운 남편님이 오신 것이외다."

설운 큰부인은 산 수절 지켜 앉아 있으니 열녀법을 마련하고, 인간에서 예문예장[1]만 드리면 저승에서는 남매가 되는 법입니다.

1) 혼인할 때 신랑집에서 예단에 붙여 신부집으로 보내는 글.

10. 강림이가 버무왕 염라왕의 도움으로 머무왕 삼 형제를 살리고 과양생이 부부를 벌한다

그 날 밤 사랑을 풀언 큰부인ᄒᆞ고 누었더니, 강님의 큰부인 삼년상(三年喪) 쳇시께[初祭祀]만 넘으민 언엉 살아보저 ᄒᆞ던 뒤칩[後家] 짐서방(金書房)은 뒷날 아척[翌日朝] 오고 보니 망근(網巾) 벗어 걸어지고 관디(冠帶) 벗언 걸어져시난 원(員)님아피 ᄃᆞᆯ려들언,

"강님이 저승 강 염내왕(閻羅王) 잽혀 오키옌 허여 뒨 낮의는 펭풍(屛風) 뒷강에 곱앙 살림ᄒᆞ곡 밤이민 펭풍 밧겻디 부베간(夫婦間) 살림 살암수다."

원님은 걸싼 박파도를 내여놓고,

"강님이를 어서 동안(東軒)마당 입참(入參)시기라."

박파도가 강님이 ᄃᆞ려아전 동안마당 들어사난 원님이 말을 ᄒᆞ뒈,

"어느 거 염내왕(閻羅王)이냐?"

"삼척헤동(三尺孩童)은 등을 보라 허여시니 나 등을 보옵소서. 멋이옌 허여시니."

저승 어인타인(御印打印)을 맞아시난

"모릿날 ᄉᆞ오시(巳午時)예 염내왕이 올 때ᄭᆞ지 강님이 옥안[獄內]에 하옥(下獄)시경 놔두라."

강님이 옥 안에 가두어두고, 모릿날 ᄉᆞ오시(巳午時)가 근당(近當)ᄒᆞ니 동서(東西)으로 번구름이 떠오고 황고지가 동안(東軒) 마당 사아간게 좁은 목에 베락치듯 염내왕이 동안마당[東軒庭] 들어사난, 짐치(金緻) 원님도 ᄃᆞᆯ을 질을 이언 공짓[控柱] 지동 뒤예 곱았더니

염내왕(閻羅王)이 동안(東軒)마당 봐도 아무도 엇어지고 옥[獄] 안에 보난 강님이 앚아시니 강님이 옥 뱃기[外] 내여놓고,

그날 밤 사랑을 풀어 큰부인하고 누웠더니, 강림의 큰부인이 삼년상 첫 제사만 넘으면 혼인하여 살아보려 하던 뒷집의 김서방은 뒷날 아침에 오고 보니, 망건이 벗어 걸어지고 관대가 벗어 걸어져 있으니, 원님에게 달려가서,

"강림이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아 오겠다고 해 두고 낮에는 병풍 뒤에 숨어서 살림하고 밤이 면 병풍 밖에서 부부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원님은 날쌘 박파도를 내놓고,

"강림이를 어서 동헌 마당에 입참시켜라."

박파도가 강림이를 데려서 동헌 마당에 들어서니, 원님이 말을 하되,

"어느 것이 염라왕이냐?"

"삼 척 어린아이는 등을 보라 하였으니 나의 등을 보소서. 뭣이라 하였는가."

저승의 증거 도장 찍혀 있으니,

"모레 사오시에 염라왕이 올 때까지 강림이를 옥 안에 하옥시켜 놔두어라."

강림이를 옥 안에 가두어 두고 모레 사오시가 가까워져 오니, 동서로 뭉게구름이 떠오고 무지개가 동헌 마당에 서 가더니, 좁은 목에 벼락 치듯이 염라왕이 동헌 마당에 들어선다.

김치 원님도 도망갈 길을 잃어서 공주[1] 뒤에 숨었구나.

염라왕이 동헌 마당을 봐도 아무도 없고, 옥사 조서를 보니 강림이가 앉아 있으니, 강림이를 옥 밖에 내어놓고,

1) 문 앞에 세운 작은 덧문.

"원(員)님은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네다."

"이 집 누게 세왔느냐?"

"강태공(姜太公)이 짓었습네다."

"강태공 불르라."

강태공 불러단

"이 집 지동[柱] 멧 게를 세왔느냐? 너 손메 아니 든 지동[柱]이랑 대톱 소톱 드령 싸 올리라."

"공짓(控柱) 지동 저 손메 아니 든 지동입네다."

대톱으로 싸자 ᄒ니 ᄌ짓피[紫芝血]가 불끗 나더니, 원님이 양주먹 불끈 줴여 북북 털멍 이이 알레레 ᄂ려사니, 염내왕이 고성(高聲)을 높이여,

"어떤 일로 나를 청허였느냐?"

원님도 데답(對答)홀 수 엇어 주먹을 쥐언 털어가난, 원님데신(代身) 강님이가 데답ᄒ뒈,

"염내왕님아, 어찌 그리 후욕(詬辱)을 홉니까? 저승 왕도 왕(王)이고 이승 왕도 왕인데, 왕(王)광

왕찔에 못 청홀 배 있소리까?"

염내왕이 그 말을 들으니,

"강님이 똑똑ᄒ고 역력ᄒ다. 이승왕님아 어떤 일로 나를 청홉데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과양(光陽) 땅에 과양셍이가 아들 삼성제 ᄒ 날 ᄒ 시(時) ᄉ아나고, ᄒ 날 ᄒ 시에 과거(科擧) 띄와 ᄒ 날 ᄒ 시에 죽은 소지(所志) 절체를 ᄒ저 염내왕을 청허였습네다."

"나도 저승서 그 줄 알안 왔습네다. 과양셍이 부베간(夫婦間) 동안(東軒)마당 ᄃ령옵서."

과양셍이 부베간 동안(東軒)마당 불러단,

"너는 아들 죽어 어디 출병 허였느냐?"

"원님은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누가 세웠느냐?"

"강태공이 지었습니다."

"강태공을 불러라."

강태공을 불러다가,

"이 집 기둥은 몇 개를 세웠느냐? 너의 솜씨 아니 든 기둥은 대톱 소톱으로 끊어 올려라."

"공주 기둥은 저의 솜씨가 안 든 기둥이옵니다."

대톱으로 끊으려 하니 자줏빛 피가 불끈 나더니, 원님이 양주먹을 불끈 쥐어 발발 떨며 댓돌 아래로 내려서니, 염라왕이 소리를 높여,

"어떤 일로 나를 청하였느냐?"

원님도 대답을 할 수 없어 주먹만 쥐어 떨어가니, 원님 대신 강림이가 대답하되,

"염라왕님아, 어찌 그리 욕을 하십니까? 저승 왕도 왕이고 이승 왕도 왕인데, 왕과 왕끼리 못 청할 수 있습니까?"

염라왕이 그 말을 듣고,

"강림이가 똑똑하고 역력하다. 이승 왕님아, 어떤 일로 나를 청하였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양 땅에 과양생이의 아들 삼 형제가 한날한시에 태어나고, 한날한시에 과거에 급제하고, 한날한시에 죽은 소지를 처리하려고 염라왕을 청하였습니다."

"나도 저승에서 그런 줄 알고 왔소이다. 과양생이 부부간을 동헌 마당에 데려오시오."

과양생이 부부간을 동헌 마당에 불러다가,

"너는 아들들이 죽으니, 어디에 임시로 매장하였느냐?"

"앞 밧디 울성장안 했습네다."

"아무도 손도엠 말앙 느네 부베간(夫婦間) 손으로만 헤싸 보라."

헤싼 보난 아무것도 엇어지고 칠성판(七星板)만 이섰고나.

"어느 거 너의 아ᄃᆞᆯ 삼성제냐?"

염내왕이 금풍체[金扇]로 주천강(酒泉江) 연못[連池]을 삼ᄉᆡ번 후리난 주천강 연못이 바짝 ᄌᆞᆽ아 져 모인 구둠이 나옵데다. 버무왕 아ᄃᆞᆯ 죽은 시체(屍體)는 뻬[骨]만 ᄉᆞᆯ그랑 허여시난 도리도리 모도와놘 염내왕이 금풍체로 삼ᄉᆡ번 후리난 ᄉᆡ성제가,

"아이고, 봄줌[春眠]이라 늦게 잤수다."

와들랑이 일어나난 과양셍이 부베간(夫婦間) 불러단,

"이거 너의 아ᄃᆞᆯ 삼성제냐?"

"예, 우리 아ᄃᆞᆯ 삼성제광 꼭 ᄀᆞ뜹네다."

버무왕 아ᄃᆞᆯ 삼성제가 활 받으라, 칼 받으라, 죽일팔로 둘러가니, 염내왕(閻羅王)이 말을 ᄒᆞ뒈,

"원수는 내 가파주마. 아방국 어멍국 어서 ᄎᆞᆽ앙 가라."

과양셍이 부베간 아옵 각[九脚]에 쉐[牛]를 메여 무등여기ᄀᆞ라 동서(東西)레레 ᄆᆞᆯ라 ᄒᆞ니 과양셍이 부베간(夫婦間) 아옵 각에 ᄎᆞᆽ어져 ᄎᆞᆽ어지단 남은 건 도구(搗臼)방애 노안 독독 ᄈᆞᆺ안 허풍ᄇᆞ름[虛風]에 불려부난, 산 때도 놈의 피만 ᄈᆞᆯ아 먹젠ᄒᆞ단 과양셍이 부베간(夫婦間) 죽언 가도 놈의 필 ᄈᆞᆯ아 먹저 ᄀᆞ다귀 모ᄀᆡ[蛟] 몸에 환생(還生)ᄒᆸ데다.

"앞 밭에 서울만큼 크게 묏자리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말고 부부간 손으로만 헤쳐 보아라."

헤쳐 보니 아무것도 없고, 칠성판[1]만 있습니다.

"어느 것이 너의 아들 삼 형제냐?"

염라왕이 금부채로 주천강[2] 연못을 세 번 때리니 주천강 연못이 바싹 잦아져 마른 먼지가 나옵디다. 버무왕 아들 죽은 시체는 뼈만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 차례차례 모아놓고, 염라왕이 금부채로 세 번을 때리니, 삼 형제가,

"아이고, 봄 잠이라 늦게 잤습니다."

벌떡 일어나니, 과양생이 부부간을 불러다가,

"이것이 너의 아들 삼 형제냐?"

"예, 우리 아들 삼 형제와 똑같습니다."

그러자 버무왕 아들 삼 형제가 활 받아라, 칼 받아라, 죽일 판으로 덤벼들어 가니, 염라왕이 말을 하되,

"원수는 내가 갚아 주마. 아버지 어머니를 어서 찾아가거라."

과양생이 부부의 팔다리 아홉을 소에다 묶어 목동에게 시켜 동서로 몰아가라 하니, 과양생이 부부의 몸이 아홉 조각으로 찢어집니다.

찢어지다 남은 것은 방아에 넣어 독독 빻아서 바람에 날려 버리니, 살아 있던 때도 남의 피만 빨아먹자고 하던 과양생이 부부는 죽어도 남의 피를 빨아먹자고 각다귀, 모기 몸으로 환생합디다.

1) 관(棺)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

2) 술이 나온다는 샘물.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설화의 화소임.

11. 염라왕이 강림이를 저승으로 데려가고, 강림이는 적패지를 까마키에게 맡겨 죽음의 질서가 흐트러진다

염내왕이 말을 ᄒᆞ뒈,

"짐치(金緻) 원님아, 짐치원님아, 강님이 ᄒᆞᆫ끔만 빌립서. 저승 강 부리당 보내리다."

"아니 뒙네다."

"계건 옵서. 우리 반착썩 갈라앗게."

"어서 걸랑 그리ᄒᆞᆸ서."

"몸천[肉體]을 앗으쿠가? 혼정(魂情)을 앗으쿠가?"

어리석은 짐치원님,

"몸천을 앗으쿠다."

염내왕은 강님의 삼혼(三魂)을 빼여 앚안 저승으로 돌아사니, 강님인 동한(東軒) 마당 걷단 우두켕이 사난 짐치(金緻)원님이 술을 먹단

"강님이야, 이 술 ᄒᆞᆫ 잔 먹엉 저승 가 온 말이나 골으라."

강님이 속솜ᄒᆞ난 짐치원님이,

"저놈 보라. 염내왕 잽혀 오고렌 너미 큰 체허연 말데답도 아니ᄒᆞᆫ다."

능장대(稜杖)로 툭 거찌난 뎅글랑이 자빠젼게 입에 게꿈 코에 송인이 올라 강님이 죽어간다.

강님의 큰부인 동안(東軒)마당 ᄃᆞᆯ려들언,

"원님아, 우리 낭군(郎君) 무스거 못ᄒᆞᆫ 일 십데가?"

원님 앞의 ᄃᆞᆯ려들어 허우튼으는 게 원님도 죽고보니 엿날[昔日]은 사름 죽어 데살법(代殺法)이 이십데다.

염라왕이 말을 하되,

"김치 원님아, 김치 원님아, 강림이를 조금만 빌려주소. 저승에 가서 일을 시키다가 보내드리겠소."

"아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반 조각씩 나누어 갖는 것이 어떻소?"

"어서 그건 그렇게 하소서."

"육체를 갖겠소? 혼령을 갖겠소?"

어리석은 김치 원님은,

"육신을 가지겠소이다."

염라왕은 강림이 삼혼을 빼내 갖고 저승으로 돌아서니, 강림이는 동헌 마당을 걷다가 우두커니 서니 김치 원님이 술을 먹다가,

"강림이야, 이 술 한 잔 먹고 저승에 갔다 온 말이나 해 봐라."

강림이 대답을 않고 잠잠하니, 김치 원님이,

"저놈 봐라. 염라왕을 잡아 왔다고 너무 큰 척하여 말대답도 안 한다."

능장대[1]로 툭 건드리니, 뎅강 자빠진 것이 입에 거품 물고 코에 송인이 올라 강림이는 죽어 갑니다.

강림의 큰부인이 동헌 마당에 달려들어,

"원님아, 우리 낭군이 무엇 못한 일 있었습니까?"

원님 앞에 달려들어 허위뜯는 것이 원님도 죽습니다. 이것으로 옛날은 사람 죽으면 대살법[2] 있는 것입니다.

1) 밤에 순찰을 돌 때 쓰던 기구

2)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

강님의 큰부인 섭섭ᄒᆞ다 초수렴(初襲殮) 대수렴(大襲殮) 성복(成服) 일포(日脯) 동관(動棺) 허여 도 섭섭허연 마은ᄋᆞᄃᆞᆸ[四十八] 상뒷군(喪徒) ᄆᆞᆯ캐남 상여화단 '어기낭창' 허여도 섭섭허여, 군왕지기(君王之地) 염토(掩土)ᄒᆞ고, 초우 제우 삼우(初虞再虞三虞) 초ᄒᆞ를(初一日) 보름 삭망(朔望) 소기(小忌) 대길(大忌) 지나도 섭섭허연 일년에 ᄒᆞᆫ두 번 잊어불지나 말저 삼멩일(三名節) 기일 제ᄉᆞᆺ법(忌日祭祀法) 마련허였수다.

강님인 저승 간 염나대왕의 분부를 맡안,

"인간 사름 예ᄌᆞ(女子)는 칠십(七十), 남ᄌᆞ(男子)는 팔십(八十) 전멩(定命)으로 ᄎᆞ례ᄎᆞ례 저승 오라. 적베지(赤牌紙) 붙여두고 오랜."

ᄒᆞ난 강님이가 인간 오단 질 버천 질에염[路邊]에 앚아시난 가마귀[烏]라 ᄒᆞᆫ 중싱[禽獸]이 까옥까옥ᄒᆞ멍,

"성님(兄一)아, 그 적베지(赤牌紙) 나 젯ᄂᆞᆯ개기예 부쪄줍서. 인간(人間)가 부쪄두고 오리웨다."

적베질 가마귈 줬더니 젯ᄂᆞᆯ개예 ᄃᆞᆯ아아전 인간 ᄂᆞᆯ아오단 보니, ᄆᆞᆯ[馬] 죽은 밧[田]디 ᄆᆞᆯ 잡암시난 ᄆᆞᆯ 피[馬血] ᄒᆞᆫ 점[一點] 얻어 먹고 가저 까옥까옥 울단보난 ᄆᆞᆯ 잡단 피쟁이 가 ᄆᆞᆯ발통 근차 데끼난 맞히는가 가마귄 젯ᄂᆞᆯ갤 벌렸더니 적베지(赤牌紙)는 도록기 털어지난,

담꼬망에 있단 벡구렝인 적베질 옴찍 먹어 들어가니, 그 때 내온 법으로 칠성 죽은 법은 엇어 아홉번 죽어 열번 도환싱(還生)ᄒᆞᆸ네다.

강림의 큰부인은 섭섭하여 초염습, 대염습[1], 성복[2], 일포[3], 동관[4]을 하여도 섭섭하고, 마흔여덟 상도꾼[5]을 모아 상여를 메어 어기낭창[6] 하며 상여 노래를 불러도 섭섭하여, 왕이 묻힐 만한 땅에 장사를 지내고, 초우, 재우, 삼우[7], 초하루 보름 삭망제, 소기, 대기를 지나도 섭섭하여 일 년에 한두 번 잊어버리지나 말려고 삼명절[8] 기일 제사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강림이가 저승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인간 사람 여자는 일흔, 남자는 여든이 정해진 수명이니 차례차례 저승으로 데려와라. 적패지를 붙이고 와라."

하니, 강림이가 인간 세상에 오는데, 길이 힘들어서 길옆에 앉아 있더니, 까마귀란 짐승이 까옥까옥하면서,

"형님아, 그 적패지를 내 앞날개에 붙여주소. 인간 세상에 가 붙여두고 오겠소이다."

적패지를 까마귀에게 주었더니 앞날개에 달아서 인간 세상에 날아오다 보니, 말 죽은 밭에서 말을 잡고 있기에, 말 피 한 점을 얻어 먹고 가려고 까옥까옥 울다 보니, 말 잡던 백정이 말발굽을 끊어 잡아 던졌는데, 자기를 향해 쏘는가 하여 까마키는 앞날개를 벌려 날았더니 적패지는 도록하게 떨어집디다.

담 구멍에 있던 흰 구렁이가 적패지를 옴찍 먹어버리니, 그때 낸 법으로 뱀은 죽는 법이 없고, 아홉 번 죽어도 열 번 환생하는 법입니다.

---

1) '염습'은 죽은 사람의 몸을 씻은 뒤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2) 초상이 났을 때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일.
3) 발일 전날 지내는 제사.
4) 빈소에서 상여로 관을 옮기는 일.
5) 상여를 메고 봉분(封墳)을 만드는 많은 군중.
6) 상여 노래의 후렴구(後斂句).
7) 각각 장사 지낸 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지내는 제사.
8) 임금의 탄신일과 정월 초하루 및 동지의 세 명절.

가마귄(烏) 욮의 보난 소로기놈 앚아시난,

"나 적베지(赤牌紙) 도라. 까옥."

"아니 보고라. 뺑고로록."

그때 내온 법으로 이제 지금도 가마귀광 소로긴 만나민 서로 원수지간(怨讐之間)이 뒈여 서로 튼는 법입네다.

가마귄 인간 놀아 와,

"아이 갈 디 어른 갑서. 어른 갈 디 아이 갑서. 부모(父母) 갈 디 즈식(子息) 갑서. 즈손(子孫) 갈 디 조상(祖上) 갑서. 조상 갈 디 즈손 갑서."

거은 물 거은 드리를 주었수다.

가마귀도 궂이 울어 궂는 법이라, 아침 가마귄 아이 죽을 가마귀, 낮 가마귄 젊은 사름 죽을 가마귀, 낮후젯 가마귄 망년 노인(妄靈老人) 갈 가마귀,

지붕 상(上)가지 우는 가마귄 상인(上人) 죽을 가마귀, 중(中)가지 우는 가마귄 중인(中人) 죽을 가마귀, 하(下)가지 우는 가마귄 하인(下人) 죽을 가마귀,

자장가마귄 싸움 날 가마귀, 동(東)데레 앚아 우는 가마귄 양석(糧食) 읏인 소님[客] 들 가마귀, 서(西)레레 앚아 우는 가마귄 소문(所聞) 기별 올 가마귀,

초저낙 가마귀 화제(火災) 날 가마귀, 밤중 가마귀 역적도문(逆賊圖謀) 살인(殺人)날 가마귀.

저승초군문(初軍門)이 아이 어른 읏이 ㄱ득고 보니 최판관(崔判官)이,

"어떵허연 ᄎ례ᄎ례 오랜 흔디 아이 어른 다 오랐느냐?"

까마귀가 옆을 보니, 솔개놈이 앉아 있기에,

"내 적패지 달라. 까옥."

"안 보았다. 뺑고로록."

그때 낸 법으로 지금도 까마귀와 솔개는 만나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싸우는 법입니다.

까마키는 인간 세상에 날아 와,

"아이 갈 데 어른 가소. 어른 갈 데 아이 가소. 부모 갈 데 자식 가소. 자손 갈 데 조상 가소. 조상 갈 데 자손 가소."

이렇게 말해 버리니 순서 없이 누구나 죽어 가게 된 것입니다.

까마키가 궂게 울면 나쁜 법입니다. 아침 까마키는 아이 죽을 까마키, 낮 까마키는 젊은 사람 죽을 까마키, 오후의 까마키는 늙은 노인 죽을 까마키,

지붕 꼭대기에서 우는 까마키는 양반 죽을 까마키, 중간 지붕에서 우는 까마키는 중인 죽을 까마키, 낮은 지붕에서 우는 까마키는 하인 죽을 까마키,

소리가 듣기 싫은 까마키는 싸움 날 까마키, 동으로 앉아 우는 까마키는 양식 없는 집에 손님이 들어올 까마키, 서쪽으로 앉아 우는 까마키는 소문 기별 올 까마키,

초저녁 까마키는 불이날 까마키, 밤중 까마키는 역적도모하여 살인 날 까마키가 된 것이지요.

저승 초군문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가득하고 보니, 최판관[1]이,

"어째서 차례차례 오라고 했는데 아이 어른이 다 왔느냐?"

1) 죽은 사람에 대해 살았을 때의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는 저승의 벼슬아치.

강님이예 문출(問招) ᄒᆞ니, 강님이는 가마귀를 심언 문추(問招)를 ᄒᆞ는디 적베지(赤牌紙)는 ᄆᆞᆯ[馬] 죽은 밧디 들어 일렀젠 ᄒᆞ난

밀남 도리채 보리낭 성ᄏᆞ레 족낭 막뎅이로 가마귀 아렛도릴 후리난, 그때옛 법으로 가마귄 '가른 밧디 거름'이라 앙기조침 걷는 법 마련 허였수다.

강림이에게 문초를 하니, 강림이는 까마키를 잡아 문초를 하는데, 적패지는 말 죽은 밭에 들어 가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보릿대 형틀에 묶어 밀대 곤장으로 까마키 아랫도리를 때리니, 그때 낸 법으로 까마키는 갈아놓은 밭을 걷는 모양으로 바로 걷지 못하고 아장아장 걷게 되었습니다.

12. 강림이가 동방삭을 잡아 능력을 인정받고, 염라왕은 강림이를 인간 차사로 명한다

강님이신디 염내왕이 분부ᄒᆞ뒈,

"동방색(東方朔)일 잡젠 허연 아이체ᄉᆞ[兒差使ㄴ] 가민 어른이 뒈고 어른체ᄉᆞ 가민 아이가 뒈여도 잡아오질 못ᄒᆞ니 어떤일고? 느가 동방색이 신 딜 강 동방색일 잡아오민 ᄒᆞᆫ ᄃᆞᆯ[一月]을 노아주마."

"어서 걸랑 그리흡서."

강님이가 그 ᄆᆞ을(里)에 ᄂᆞ려 산 검은 숫[黑炭]을 시내 방천(防川)에서 발강발강 싯엄시난 동방색(東方朔)이가 넘어가단,

"넌 어떤 일로 숫을 앚아 싯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검은 숫을 벡일(百日)만 싯엄시민 벡숫[白炭]이 뒈영 벡가지 약이 뒌댄 허연 싯엄수다."

"이 놈아 저 놈아, 내가 동방색이 삼천년(東方朔三千年)을 살아도 그런 말 들어본 도레(道理) 읏노라."

강님이가 방끗 웃으멍 욮의 찼단 홍사(紅絲) 줄을 내여놓고 동방색이 ᄉᆞ문 절박을 ᄒᆞ난,

"어떤 체ᄉᆞ(差使)가 와도 날 잡을 체ᄉᆞ 엇더라마는 동방색이(東方朔)이 삼천년을 살단 보난 강님의 손에는 잽히는구나. 어서 저승읠 가자."

염내왕에 바쩠더니 염내왕에서,

"강님이 똑똑ᄒᆞ고 역력ᄒᆞ니 사름 잡는 인간체ᄉᆞ(人間差使)로 들어사라."

인간 사름 잡아 갑던 강님체ᄉᆞ 뒈옵네다.

강림이에게 염라왕이 분부를 하되,

"동방삭이를 잡자고 하여 차사를 보내는데, 아이 차사가 가면 어른이 되고, 어른 차사가 가면 아이가 되어도 잡아 오지를 못하니, 어떤 일인고? 네가 동방삭이 있는 데 가서 동방삭이를 잡아 오면 한 달을 놀려주마."

"어서 그건 그리하십시오."

강림이가 그 마을에 내려서서 검은 숯을 시내 방천에서 발강발강 씻고 있더니, 동방삭이가 넘어가다가,

"넌 어떤 일로 숯을 앉아 씻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검은 숯을 백일만 씻고 있으면 하얀 숯이 되어 백 가지 약이 된다고 해서 씻고 있습니다."

"이놈아, 저놈아, 내가 동방삭이라. 삼천 년을 살아도 그런 말 들어본 바가 없노라."

하니, 강림이가 방긋 웃으면서 옆에 찼던 홍사줄을 내놓고 동방삭이 몸을 결박하니,

"어떤 차사가 와도 나를 잡을 차사는 없더라마는 동방삭이 삼천 년을 살다 보니 강림의 손에는 잡히는구나. 어서 저승엘 가자."

염라왕에게 동방삭을 바쳤더니 염라왕이,

"강림이 똑똑하고 역력하니, 사람 잡는 인간 차사로 들어서라."

그 후로 강림은 사람을 잡아가던 인간 차사가 되었습니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4,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pp.108-171.